

8월3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20.02 (+31.14)		834.29 (-4.1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38 (+0.050)		1369.85 (-2.65)



오늘부터 KTX·SRT 통합 운행

KTX와 SRT 통합 운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통합 운행되면서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일주일 기준 약 11만6000석 늘어나고 KTX 운임은 구간에 따라 평균 10%가량 인하된다.

/뉴시스

‘이상기후’ 먹거리 가격 수직상승 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커진다

고물가·고금리의 귀환 ❶ 폭염이 장바구니를 덮쳤다

고(高)물가와 고금리가 다시 가게를 압박하고 있다. 폭염과 기후변화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 올리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고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높은 대출금리는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소비 여력도 떨어뜨린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린 ‘이중 압박’ 속에서 서민·중산층의 가계살림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기록적인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농산물과 어류 등 신선식품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 폭염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 현실화하면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전월(3.2%)과 비교하면 0.4%포인트(p) 낮아졌지만, 지난해 같은기간(2.1%)과 비교하면 0.7%p 오른 수준이다.

❖ 폭염에 신선식품 가격 ‘들쭉’

문제는 전체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먹거리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채소류와 어류 가격이 오르면서 가게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7월 2.5%로 전월보다 0.9%p 낮아졌다. 다만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파는 전년 동월 대비 18.3% 급등했고, 고등어는 7.0%, 조개류는 같은기간 6.3% 상승했다.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여름철 이상기후에 따른 공급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폭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했지만 채소·생선 등 장바구니물가 ↑ 2분기 가계 식비 평균 89만원 저소득층 일수록 증가폭 더 커 ‘고물가 장기화’ 대출상환 등 영향

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채소류의 생육과 출하가 차질을 빚고, 수온 상승 등으로 일부 수산물의 어획 여건도 악화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은 가공식품과 외식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재료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와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도 커져 제품과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먹거리 물가 직격탄

실제 가계의 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은 8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에 43만4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45만7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식비 증가 폭이 컸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은 6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분위는 47만3000원으로 6.1% 증가했다. 반면 3분위는 84만1000원으로 2.0%, 4분위는 110만8000원으로 3.1% 늘었고, 5분위는 137만8000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눈 지표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 2분위는 하위 20~40%, 3분위는 중간 20%, 4분위는 상위 20~40%, 5분위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다.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2분기 짬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자는 11.1% 올랐고 간장과 달걀도 각각 9.3%, 9.0% 상승했다. 외식 품목에서도 삼각김밥과 떡볶이가 각각 4.0%, 자장면은 3.9%, 해장국은 3.8%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될 경우 먹거리 물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에 반영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먹거리와 외식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필수지출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소비를 줄이거나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가 장기화할 경우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 감소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프로그램
- 기조강연 1 : 하성용 중부대 교수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 기조강연 2 : 박민영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겸 인하대 물류AX실증센터장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 강연 1 : 감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 강연 2 :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 강연 3 : 노재경 마스오토 부대표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metro

대규모 증설 나선 삼성·닉스 경쟁사 보다 높은 세율 변수

삼성전자, 2분기 유효세율 24.2% 하이닉스, 23.5%… TSMC, 18.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맞춰 대규모 증설에 나선 가운데 경쟁사보다 높은 세금 부담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TSMC 등 글로벌 경쟁사와 세전이익을 100조원으로 가정하면 법인세비용은 최대 9조원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함께 효율적, 지속적 투자의 재원을 축소시켜 K-반도체 빅2의 중장기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의 2분기 법인세비용은 총 51조6053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22조8153억원, SK하이닉스가 약 28조7900억원으로 실효세율은 각각 24.2%, 23.5%였다.

반면 TSMC의 2분기 실효세율은 18.1%, 마이크론의 2026회계연도 3분기(3~5월)는 15.0%였다.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각각 6.1%p(포인트), 9.2%p 낮고 SK하이닉스와는 5.4%p, 약 8.5%p 차이가 났다. TSMC의 법인세비용은 1556억5000만대만달러(약 6조7000억원), 마이크론은 49억78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였다.

실제 이익 규모를 같게 놓으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세전이익 100조원에 각사의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법인세비용이 24조2000억원, SK하이닉스는 23조5000억원인 반면 마이크론은 15조원이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차이는 9조2000억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간을 상반기로 넓혀도 격차는 이어졌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준석 “꿀페미들 겨우 정리했더니…차라리 중책을 하라” 용혜인 지명 비판
▲용혜인 성평등장관 후보, 내일 첫 출근…청문회 준비
/사진 뉴시스

▲박지원 “이준석, 민주당 올 사람 아냐…김민석도 안 받을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 없어”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이진숙 “5·18에도 표현의 자유 적용돼야…유공자 문제 개정안 발의”

금호석화, 中 지방정부 협력 확대… 배터리 등 현지사업 박차

박찬구 회장, 웨이하이시장 회동
화학·소재 등 사업 협력방안 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발표되지 않아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신소재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으로 사업 협력 범위를 넓힌다. 현지 골프장 운영을 중심으로 이어온 협력을 화학·소재 등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확대해 중국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31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지난 2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쿵판핑 웨이하이시장과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총괄사장과 백종훈 대표이사 사장, 고영도 관리본부장 부사장, 박점규 금호리조트 전무 등도 참석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웨이하이의 협력은 지난 2021년 금호리조트가 그룹에 편입된 이후 본격화됐다. 금호리조트는 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앞줄 왼쪽)이 쿵판핑 웨이하이시장(앞줄 오른쪽)과 회담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둥성에서 아시아나웨이하이컨트리클럽(AWCC)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수 이후 골프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뉴얼했다. 이후 한국과 중국 골퍼를 유치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웨이하이 당국과 협력해왔다.

이번 회동에서는 기존 관광·레저뿐 아

니라 화학·소재 등 산업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웨이하이는 첨단 제조와 신소재, 배터리 등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합성 고무와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규 투자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쿵시장은 “웨이하이는 첨단 제조, 신소재, 배터리 등 미래 산업 체계를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그룹과 협력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며 “변함없이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상호 이익과 상생 협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웨이하이가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제안한 데에는 한국과 쌓아온 경제 교류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웨이하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교역 확대를 추진해왔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도 활발하다. 웨이하이시 상무국에 따르면 현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95곳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54.1%를 차지하며 누적 투자액은 50억 달러(약 7조원)를 넘어섰다. 한국과 거래하는 웨이하이 기업도 2600여곳에 달한다.

웨이하이와 한국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웨이하이의 대한국 수출입은 지난 10년간 67.8% 늘었

며 2024년에는 통상구 기준 중국 내 3위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한국 수출 역시 7년 연속 산둥성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중국 전체 1위에 올랐다.

웨이하이는 이 같은 교역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과의 협력 분야를 산업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와 신소재, 배터리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금호석유화학그룹과의 회동에서도 관련 분야의 협력 확대와 행정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중국 골프산업의 발전과 함께 웨이하이와 한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 정부에서도 상호 협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파운드리업체, 주요공정 가격인상… 수익성 개선 ‘가속’

AI 관련 주문증가·수급 불균형 지속
삼성전자·TSMC 등 추가 인상 전망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첨단·성숙공정의 공급이빠듯해지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가격이 뛰고 있다. 삼성전자가 4·5나노미터(nm) 등 주요 공정 가격을 올린 가운데 시장 1위 TSMC도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운드리 업계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순수 파운드리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했다. AI 관련 주문 증가와 생산 능력 재배치로 첨단·성숙공정 모두 수급 불균형이 이어진 영향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하반기에도 파운드리 웨이퍼 평균판매가격(ASP)이 추가 상승하고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4나노 공정인 SF4 신규 주문 가격을 미국과 중국 고객 대상으로 전월보다 10~15% 인상한 것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알려졌다. 다만 고객 가격은 5~10% 올랐다. 5나노 SF5 웨이퍼 가격도 10~15%, 8나노 공정은 10% 가까이 상승했다.

가격 인상 배경에는 AI 가속기와 고성능컴퓨팅(HPC)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TSMC의 첨단공정 생산능력이 빠듯해지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일부 고객들이 삼성전자와 인텔 등 경쟁 파운드리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의 SF4 생산라인도 지난해 말부터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SMC의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매체 화알제렌원은 지난 30일 트렌드포스와 노무라증권 등의 자료를 인용해 TSMC가 공급이 부족한 일부 3나노(N3) 공정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2027년 초까지 N2·N3·N5 등 첨단공정 가격을 추가로 5~10%, N12·N16·N28 등 일부 성숙공정도 최대 10%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성숙공정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은 평균 5~15% 올랐다. AI용 전력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요 업체들이 성숙공정 생산능력을 줄이거나 고부가 제품으로 재배치하면서 공급이 빠듯해진 영향이다. 트렌드포스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TSMC의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TSMC는 2분기 글로벌 순수파운드리 시장에서 73%의 점유율로 1위를 지켰다. 삼

성전자는 7%로 2위에 자리해 양사 간 격차는 66%포인트에 달했다.

삼성전자에는 가동률 상승과 웨이퍼 가격 인상이 파운드리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은 SF4·SF5 수요 확대와 함께 2나노 공정 수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AI·HPC용 제품과 HBM용 베이스다이 수요 확대도 하반기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큰 만큼 2나노 경쟁력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가 2나노 수율을 안정화하고 대형 고객사의 양산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는 고정비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가동률이 올라가고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우호적인 요인”이라며 “최근 AI 수요 증가로 첨단공정을 중심으로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SK 법인세 167% ↑

삼성전자는 세전이익 153조2682억원에 법인세비용 34조4185억원을 반영해 실효세율이 22.5%였다. SK하이닉스도 세전이익 174조3169억원에 약 40조원의 법인세비용을 반영해 실효세율이 23.0% 수준이었다. TSMC는 실효세율이 17.5%였고, 마이크론은 2026회계연도 3분기까지 14.8%로 국내 두 업체보다 낮았다.

다만 TSMC와 마이크론도 이전보다 실효세율이 올랐지만 국내 업체와의 격차는 여전했다. TSMC는 올해 1분기보다 1.3%p 상승했다. 회사는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론도 전년 동기보다 3.3%p 올랐다. 싱가포르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줄어든 영향이다.

실효세율뿐 아니라 실제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커졌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총 11조20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7%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3조9876억원, SK하이닉스가 7조2207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2019년 상반기 12조6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납부 시점 등의 차이로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처럼 반도체 기업의 세금 부담과 투자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세제 지원도 투자 경쟁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20%를 세액공제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였다.

특히 AI와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고객사의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장기 수요에 맞춰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투자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산업생산 제자리 걸음… 소매판매 2.4% ↓

데이터처 7월 산업활동동향
전산업생산 포함… 설비투자 7.5% ↑

7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제자리걸음했다. 이 중에서도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은 줄었는데, 서비스업의 경우 4년5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달 소비도 2% 넘게 줄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크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증감은 전달과 비교해 보합(0%)으로 집계됐다.

전산업생산은 중동발 충격으로 4월(-0.5%)과 5월(-0.4%) 감소한 이후 6월(2.4%)에 6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보합에 그쳤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0.2% 늘었다. 6월(6.7%)에 비해 증가세가 꺾인 모습비난. 전자부품(20.7%), 1차금속(4.2%) 등에서 생산이 증가했지만 자동차(-4.5%)에서 부진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1.5% 감소했다. 내수 출하(-0.9%)와 수출 출하(-2.3%) 모두 감소다.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97.2%로 3.4%포인트(p) 올랐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9%로 0.2%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1.3%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후퇴했다. 이는 2022년 2월(-1.7%)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금융·보험(-4.8%)과 전문·과학기술(-2.

7%) 등에서 감소했고 정보통신(3.5%) 생산은 증가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4% 뒷걸음질했다. 6월 큰 폭(2.7%)으로 증가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승용차 등 내구재(-7.7%),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로 백화점(-5.6%), 편의점(-0.9%), 승용차·연료소매점(-5.1%), 전문소매점(-2.4%), 무점포소매(-3.1%) 등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다만 대형마트(4.3%), 면세점(2.2%), 슈퍼마켓·잡화점(1.0%)에서는 증가했다.

이에 반해, 설비투자는 7.5%나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15.4%) 투자가 크게 늘었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토목(18.5%)에서 공

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7.4%)에서 줄면서 1.1% 감소를 나타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소비가 전월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용차 생산은 6월에 크게 증가했다가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은 7월에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감소에 대해서는 “승용차 판매의 경우 6월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로 앞두고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하락했다”며 “가전·통신기기 판매도 전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판촉행사가 소멸하면서 소매판매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 성큼… 국내외 규제 정비도 속도

IAEA, 해상원자력 협력체 ATLAS
IMO, 원자력 상선 안전규정 개정
원안위, 2030년 SMR 인허가 구축
HD현대·삼성중공업 기술개발 박차

국내 조선업계가 원자력 추진선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실제 건조와 운항에 필요한 규제체계 마련도 국내외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 안전기준 개정과 국내 인허가 체계 정비가 함께 추진되며 상용화를 위한 제도 논의도 가시화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원자력 추진선 등 해상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국제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ATLAS’를 출범시켰다. 한국 정부 대표단과 HD한국조선해양도 출범식에 참여해 국제기준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 논의는 실제 안전규정 개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HD한국조선해양이 공개한 1만5000 TEU급 SMR 추진 컨테이너선의 조감도.

/HD현대

1981년 채택된 원자력 상선 안전규정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8장을 현대 원자력 기술에 맞춰 개정하고 있다. 설계·방사선 방호·안전설비·비상대응 기준을 정비해 오는 2030년 개정안 채택을

목표로 한다.

국내 조선업계도 향후 선박 설계·건조에 반영될 국제 규범 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4년 IAEA, 미국선급협회(ABS), 영국선급(L

R) 등과 해상 원자로 적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급·보협사·원자력·해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양 원자력 관련 국제 민간단체 NEMO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국제기구와의 규제·표준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준과 함께 실제 국내 건조·운항을 뒷받침할 인허가 체계도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해 대형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를 비경수로·해양 등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인허가 전 설계와 주요 기술을 검토하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28년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가칭 ‘SMR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을 거쳐 2030년까지 종합적인 SMR 인허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사들의 원자력 추진선 기술 개발은 앞서부터 이어져 왔다. HD현대에는 ABS로부터 SMR을 적용한 1만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의 기본승인

(AiP)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용융염원자로(MSR)를 적용한 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개념설계에 대해 LR의 기본승인을 획득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17만4000㎥급 MS R 추진 LNG운반선 개념설계에 대해 ABS와 라이베리아 기국의 기본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원자력연구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개발한 1만5000TEU급 MS R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설계에 대해 ABS 기본승인을 획득했다.

한화오션은 한국전력기술과 해상 SMR의 쇄빙선 동력원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급의 기본승인은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실제 원자력 추진 상선의 건조와 운항을 위해서는 국내 인허가 체계와 국제 안전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테슬라 FSD 국내 확산… 현대차, 자율주행 추격전 본격화

국내 FSD 누적 주행 5000만km 돌파
비전 온리 방식 안전성 우려 지속

광주서 E2E 자율주행 실도로 검증
2028년 SDV에 레벨2+ 적용 목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감독형)이 국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고객 차량에서 FSD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올해 광주에서 자체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기술의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

31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감독형 FSD 이용 가능 차량의 작동 구간 누적 주행거리는 지난 21일 기준 5000만km를 넘어섰다. FSD는 차량이 경로에 따라 조향과 가속, 차선 변경 등을 수행하는 주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FSD) 감독형 이미지.

/테슬라코리아

행보조 기능으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미국산 모델3·모델Y에 ‘FSD v14 Lite’가 순차 배포됐다. v14 Lite는 최신 주행 특성을 구현 하드웨어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버전이다.

FSD 적용이 확대되면서 안전성과 기술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FSD 작동 차량의 적색신호 위반과 반대차선 진입 사례 등을 토대로 예

비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테슬라가 카메라만으로 주변 환경을 판단하는 ‘비전 온리’ 방식을 택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비전 온리 시스템은 카메라 렌즈에 빔방울이 묻으면 시야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며 “악천후 조건에서 확실한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레이더·라이다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비전 온리를 택한 배경에는 원가 절감과 확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센서를 줄여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차량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구형과 최신 자율주행 하드웨어 간 성능 차이가 나타난 점을 들어 테슬라의 현재 전략에 대해 “다소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테슬라 기술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 현대차도 자율주행 경쟁에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테슬라는 이미 소비자 차량을 통해 실 주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자체 E2E 자율주행 솔루션 ‘아트리아 AI’의 대규모 실도로 검증을 본격화하는 단계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광주에서 아트리아 AI를 적용한 자율주행 실증에 나선다. 양산차 기반 차량 200여대를 투입하며 카메라 8대와 레이더 1대를 기본 탑재한다. 아

트리아 AI는 인식·판단·제어 전 과정을 하나의 AI 모델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올해 광주에서 실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8년 첫 양산형 소프트웨어중심차(SDV)에 레벨2+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테슬라 등 IT 기반 업체보다 기술 적용에 신중한 배경에는 완성차 업체가 안전 검증을 우선하는 개발 방식도 자리 잡고 있다.

이 교수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점차 적용해 나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도 IT 기업의 개발 방식을 받아들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보수적인 전략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metro

삼성·SK 성과급의 힘… 지역소비 4% 늘고 성장률 최대 0.09%p ↑

이천·화성·청주 소비 증가 뚜렷
내년 세후 현금 성과급 21.9조 전망
올해 4.4조의 5배… 내수 효과 확대
주택·고가 소비 쏠림은 파급력 제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이후 이천·화성·청주 등 반도체 산업 수혜지역의 소비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두 회사의 세후 성과급이 21조9000억원에 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09%포인트(p)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반도체 호황의 지역소비 파급효과’에서 지역별 카드 이용액과 반도체 종사자 비중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 성과급 받은 지역 소비 최대 4% ↑

한은 연구진은 성인 인구 가운데 반도체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이천(6.8%)과 화성(4.6%), 청주 흥덕구(3.6%)를 고노출

지역으로 분류했다. NH농협카드와 하나카드 이용자의 청구지 기준 소비액을 활용해 성과급 지급 전후 소비 변화를 반도체 노출도가 낮은 지역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고노출 지역의 소비는 2025년 성과급 지급 이후 비교 지역보다 1.6% 많아졌다. 올해 초 성과급이 다시 지급된 뒤 격차가 확대돼 지난 6월에는 3.7%에 달했다.

연구진은 성과급 지급으로 수혜지역의 월평균 소비가 최대 4%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과급으로 늘어난 소비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누적 증가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으로 환산한 8000억원은 지난해 전체 민간소비 증가액 41조3000억원의 약 2%다.

세후 성과급 가운데 소비로 이어진 비율인 소비파급률은 지난해 27%, 올해

21%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수준 제고 효과는 지난해 0.01%, 올해 0.03%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연구진이 증권사 영업이익의 전망 등을 토대로 추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성과급은 62조원이다. 세금과 자사주 지급분 등을 제외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21조9000억원으로, 올해 4조4000억원의 약 다섯 배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5000억원보다도 1.6배 많다.

소비파급률이 성과급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GDP 수준을 0.08% 높이고, 올해 수준의 소비파급률이 유지되면 0.12%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성장률로 환산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0.06~0.09%p 끌어 올리는 효과다.

◆ 돈 쓰는 곳 따라 효과 달라

성과급 규모가 같아도 지역별 소비 반

응에는 차이가 있었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청주는 이천보다 소비 증가 폭이 컸다. 이천에서는 소비보다 수도권 주택 매입으로 자금이 흘러간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천 거주자의 주택 매입은 성과급 지급 직후 동탄과 용인·수원·성남·하남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동탄 주택의 월평균 매입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의 약 두 배로 증가했다. 반면 청주 거주자는 주택을 사더라도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비중이 80.5%로 높았고, 성과급 지급 이후 뚜렷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 품목이 자동차와 온라인쇼핑, 가전·가구, 백화점 등 고가재량재에 집중된 점도 내수 파급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 차량 인도량은 전국에서 전년 평균보다 77.2%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혜지역에서는 105.6% 급증했다.

자동차와 고가 재량재는 수입 유발 비중이 높고 국내 임금소득을 늘리는 효과는 의료·교육이나 외식보다 작다. 일상 소비와 의료·교육 지출에서는 뚜렷한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 증가가 다른 가계의 소득과 소비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연구진은 반도체 호황의 내수 파급력을 키우려면 임금 상승뿐 아니라 고용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주요 산업의 호황기에는 평균 임금 상승보다 고용 확대가 지역 소비와 더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해 고용을 늘리고 성과급 소득이 부동산 등 자산보다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증가가 서비스업과 취약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혁신 기업에 ‘성장 사다리’... 취약차주 ‘경제 복귀’ 팔 걷어

우리금융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과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을 결합한 ‘미래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전(全) 계열사 차원에서 9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됐던 자금 공급을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고, 저신용자·성실상환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90조원 가운데 82조4000억원은 생산적금융, 포용적 금융은 7조6000억원이다. 생산적 금융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첨단·전략산업 및 수출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포용적 금융은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및 경제 복귀를 돕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 편, 자금을 조기 집행해 지원에 속도를 낸다.



- 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했다.
- ②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열린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 ③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가 우리금융의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앞에서 두번째)이 지난 6월 개최한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금융·안승진 기자

④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 ‘생산적 금융’으로 체질 전환

우리금융의 ‘생산적 금융’은 주담대·부동산 임대업 중심이었던 기존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대출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공급 목표액에만 중점을 둔 단기 전략이 아닌, 적극적인 체질 전환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비수도권 전략·핵심 분야에 필요할 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5000억원 규모의 ‘지역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전남 해남 태양광 사업과 전북 고창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자금을 출자했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 중에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도 힘쓴다. 우리금융은 우수 벤처·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투자, 스케일업, 기업공개(IPO)까지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지주사를 중심으로 은행·증권·캐피탈 등 계열사들이 협업해 우수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별로 단절 없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계열사의 체질 개선에도 힘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조작개편을 통해 투자은행(I

B)그룹과 기업그룹에 투·융자 전담 조직을 각각 신설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 직원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차원에서 명확한 취급 기준을 판단하거

5년 간 전 계열사 차원 90조 금융 공급 주담대·부동산 자금, 기업금융 중심 재편 생산적 금융 82.4조, 포용적 7.6조 편성 장기연체자·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지원 ‘단계별 자금 공급’ 안정적 경제복귀 도와

나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곽성민 우리금융그룹 부사장은 지난달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은 단순히 저금리 자산의 양적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대출로 전환하는 리밸런싱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포용적 금융’으로 복귀 지원

우리금융의 ‘포용적 금융’은 장기연체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연체채권을 적극 소각해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중신용 대출을 적극 공급해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 창구도 늘린다. 성실상환자는 단계별 자금 공급을 통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금융은 총 9조6000억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 가운데 3조 50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조기에 공급한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조기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생활비대출’을 운영해 저신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대출·신용대출도 적극 확대한다.

‘금리상한제’를 통해 중·저신용 차주의 연체 발생 가능성도 낮춘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금리상한제’를 도입해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금리 상한을 연 7%로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에 노출되기 쉬운 중·저신용 차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이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단계적 자금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 내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계열사 대출을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WON드림 갈아타기 대출’을 운영한다. 성실상환 고객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2금융권 대출 금리 평균보다 낮은 연 7%의 금리상한제를 적용해 이자부담도 크게 낮춘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 잘하고 왔어요

경기를 마치고 나니
먼저 생각났어요

훈련하는 동안
뒤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푹 쉬려고요

그리고 다시 힘내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서정 선수

계속해서 이어질 당신의 도약을
국민과 함께 KB금융그룹이 응원하겠습니다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수영, 기계체조, 육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체조 국가대표 여서정

* KB금융그룹

與 “실용 인사” vs 野 “민심 역주행”… 청문회 격돌 ‘예고’

6개 부처 개각… 상반된 여야 입장
국민의힘, 김승원·용혜인 자질 검증
용 후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야는 새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8월30일) 단행된 이 대통령의 2차 개각 인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재경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사업을 실행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실용적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추측 전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또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 할 수 있다.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평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신히 청문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전력 비판 목소리에 대해 “지금은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각 참여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걸 전제한다”면서 장관직에 지명된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걸맞게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후보자들도 각자 포부를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에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1석 뿐인 상황이라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원내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의원직을 승계받을 후순위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세 수위를 올리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면서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공소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에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나머지 장관에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경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왼쪽 쟁건다더니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다. 그레놓고 정작 국민이 쫓아내려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다. 한미동맹을 다 부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 삶보다, 한미동맹 복원보다, 본인 재관취소가 더 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재관취소용 개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인물들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올바르게 일할 사람들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왼쪽’ 좌파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본인의 재관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일시적인 지지율 반등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김민석 체제 민주당, 첫 정기국회 ‘시험대’

주요 국정과제 입법 지원에 당력 집중
장관 청문회 등 여야 충돌 요소 산적

김민석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사업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 하락세로 접어든 정당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8·17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색하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 조사는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5%),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최근 6개월 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친이재명(친명)계를 대표해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정일치’에 대한 기대감보다 부동산·중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이 더 컸던 것이 집권여당 지지율 하락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모든 의원에 게 당직 등 임무를 부여하는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둔 31일에 자신이 발족한 ‘메가 텐(10)’ 기구의 회의를 연속 주재하며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에 고삐를 조였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필요 입법을 마련하는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메가프로젝트는 영남, 호남 충청을 중심으로 돼 있는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반도체와 AI를 지방으로 내리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1년 동안 준비돼왔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의 모든 지방 성장 관련한 역량과 콘텐츠가 (특위에) 거의 결합이 돼 있다”며 “(메가프로젝트·지방 성장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후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

혁신추진단·개헌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1030 청년정책단·제2 광화당사 추진단, 불금정치 골목민생단·AI전환형 금융·중시·경제제도 개선 추진단·미·중·일 정당외교 추진단의 첫번째 회의까지 직접 챙기며 의원들에게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투구를 요청했다.

김민석 체제 앞에 놓인 ‘산’도 만만치 않다. 민생·경제 성과를 만들어 낼 시간은 촉박한데,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해 쟁점으로 번질 사안이 산적해 있다.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으며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박태홍 기자

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단계적 도입

사고당협부터 우선 적용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사고당협’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및 당원 직선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우려가 강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 직선제 선출 방식의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 검토해 점진적·단계적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해야 한다. 사고당협을 제외한 나머지 당협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고, 2028년 당협위원장 선출 전까지 당규를 개정해 당원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날 결정의 골자다.

이에 기존 당협위원장들은 9월 15일까지 당협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선출되는 기존 방식을 준용하기로 했다. 또 이날 최고위에서는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이날까지였던 점을 고려해, 정기 선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연장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조직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당협위원장 직선제 실시 대상은 위원장직이 비어있는 ‘사고당협’ 34곳과 당원권·직무정지 당협 4곳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당협은 조직위원장 즉시 공개 모집에 나설 예정이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자격 심사 후 유자격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 직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해당행위자에게는 감점이 주어진다.

또 공모 및 당무감사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당협위원장 대상 정기 당무감사도 실시한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사고당협’ 등을 제외하고 정기 당무 감사를 실시해, 해당 감사에서 당원들의 당협위원장 평가 50%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해당행위자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 당무감사를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은 교체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위 평가 당협 역시 조강특위에서 후보자를 심사해 2인 이상일 경우 당원직선제로 선출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조직 운영 규정과 당무감사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 사무총장은 “지방조직 운영규정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8월 말의 경우 당원 선거인단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감사 규정은 당무감사 시 해당 지역 당원의 평가를 50% 반영하는 걸 의무화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당원직선제는 전면 시행이 아닌 2단계 점진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재차 말했다.

이날 안건은 지도부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및 당권파가 당의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협위원장 직선제 전면 실시가 보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백지화했다면 밌겠다고 볼 수 없지만 백지화가 아니기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열정 가득한 청년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청년의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
도전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가 청년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 인턴십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연계 청년 일경험 제공

실무형 금융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지역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전국 30개 대학 연계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미래적금 기준 완화… 취업·혼인·양육 ‘생애 주기별’ 지원

‘청년 예산 연박싱 2027’ 핵심내용

내년 예산 43.3조… 약 15조 늘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하고
대출 등 부부합산 ‘결혼페널티’ 해소
구직수당 월 최대 65만원 지급

정부가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을 위해 청년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만을 지원했던 기존의 정책상품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이 소득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청년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청년 예산 연박싱(U NBOXING·최초공개) 2027’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28조2000억원)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수치다.

◆ ‘청년미래적금’ 개편

가장 큰 변화가 예정된 것은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납입액 대비 6~12%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가입기관에서도 일반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년예산 연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상한을 폐지하며, 가구 소득 요건도 없앤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미래적금은 당초 연간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반형도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일반형에 한해 가입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이번 가입 요건 폐지에 따라 당초 청년 580만명을 가입 대상으로 했던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대상을 960만명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청년미래

적금’의 혜택은 늘린다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청년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납입액 대비 12%의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15%로 오른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지급비율을 25%까지 늘린다.

◆ 생애주기별 지원

정부는 취업부터 혼인·양육까지 청년의 생애 주기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취업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하며, 혼인·양육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혼인신고시 발생가능한 정책적 여차별 등 불이익을 해소한다. 혼인신고나 출산 시에도 직접적

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체감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첫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도 정부의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로탐색이 일경험과 훈련,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취업준비청년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월 최대 65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창업 이후에 연 2~5% 수준의 낮은 금리에 상환할 수 있는 ‘신규청년기회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공급되며, 최대 3회에 나눠 자금을 지원한다.

첫 취업 시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 간극을 매우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 최대 2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만 한정됐던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도 수도권 청년까지 확대한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청년의 결합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각종 대출상품이나 정책 이용 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개인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했는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수준을 충족하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거사다리’도 개선한다.

월세 거주 청년을 위해선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제공됐던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늘린다. 또한 차상위 이하 청년에는 최대 24개월간 제공됐던 월세 지원 기간을 48개월까지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총급여 연 8000만원 이하의 청년에는 세액공제율을 17%까지 우대하며,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전세 거주 청년의 거주 안정을 위해선 1인가구 기준 연 5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200%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토부가 운영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소득 기준도 연 5000만원에서 연 7000만원까지 늘린다.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에는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주거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도 자가 마련이 가능하도록 자본적립형 수익공유형 등 공공분양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역세권, 넓은 평수 등 청년이 선호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공급한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현대캐피탈, 14억 시장 공략… 인도서 첫 금융법인

현대차그룹, 50억 달러 투자 발맞춰
캐피탈, 자동차 소매금융 인프라 마련
인도법인 출범 계기로 해외사업 확대

현대캐피탈이 인도에 금융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현지 자동차금융 시장을 공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인도 사업 확대에 발맞춰 딜러금융부터 소매금융까지 다양한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31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금융법인 형태로 ‘현대캐피탈 인도’를 새롭게 출범한다. 현대캐피탈 인도는 현대캐피탈의 14번째 금융법인이자, 합작 형태가 아닌 독자적인 경영권을 갖춘 해외법인이다.

◆ 딜러금융부터 시동

이번 인도 금융법인 출범은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인도 사업 전략과 맞닿아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30년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인도’ 금융법인 출범 소개 이미지.

/현대캐피탈

까지 인도에 50억달러를 투자, 총 26종의 신차를 출시한다.

현대캐피탈도 현지 사업 영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에는 자동차 판매 딜러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금융에 집중한다. 자동차 소매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안정적인 영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인도는 현재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비탕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한 데다 수년간 6~7%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오면서다.

◆ 자문법인서 금융법인으로

현대캐피탈은 통상 해외 시장 진출 시 지점이나 자문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금융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한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뒤 본격적인 금융 영업에 나선다는 전략에서다.

현대캐피탈 인도 역시 지난 2012년 자문법인 형태로 처음 출범했다. 이후 약 14년간 현지 시장을 조사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오다 지난 3월,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비은행 금융회사 사업권을 획득했다. 금융법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

단계적 진출 전략은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활용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24년 호주 자문법인을 금융법인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법인을 출범시켜 기존 자문법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해외 금융법인 외형 성장

이번 인도 금융법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사업 기반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현대캐피탈 호주와 인도네시아 금융법인 자산 합계는 1조1687억원이다. 지난해 말 7949억원 대비 약 47% 증가했다. 두 법인은 인도 금융법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금융법인이다.

현대캐피탈은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 온 자동차금융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 현지 시장과 고객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형진 현대캐피탈 사장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자동차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도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의 판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수도권 착공 1만2690호… 공급지표 개선

국토부, 7월 주택통계
서울지역 착공 6386호, 전년의 10배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은 부진했지만 인허가와 착공은 늘면서 향후 전망도 다소 밝아졌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착공은 1만2690호로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했다. 연초 이후 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7만7894호다.

특히 서울 지역 착공은 638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누적 실

적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1만9507호로 집계됐다.

분양실적은 누적 기준으로 수도권 7만3991호, 서울 1만4489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109.7% 증가했다.

인허가는 누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8만5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지만 서울은 2만8834호로 전년 동기 6.1% 증가했다.

준공은 전국이 큰 폭으로 줄었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수도

권과 서울 준공은 7만1204호, 2만9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7%, 43.3% 감소했다.

7월 말 미분양 주택은 6만8217호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2만9152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7월 주택 매매거래는 6만3185건으로 전월 대비 8.2%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역시 21만985건으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은행

“전국 2400개 우체국서 금융서비스 이용하세요”

고객 접근성 향상… 내달 시행

오는 10월부터 우체국 창구를 통해 BNK부산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체국의 전국 단위 금융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부산은행 고객은 오는 10월부터 전국 2400여 개 우체국 창구와 ATM을 통해 입·출금, 계좌조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NK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을 비롯해 대면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BNK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과 고객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LG전자, AI·로봇분야 등 글로벌 R&D 인재 확보 팔 걷어

북미 테크 콘퍼런스

류재철 CEO 등 주요 경영진 참석
미래사업 전략·기술 경쟁력 소개
“결국 미래를 바꾸는 것은 인재”

“결국 미래를 바꾸는 것은 인재다. LG 전자는 더 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들과 함께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 테크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냉난방공조(HVAC) 등 미래 성장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갖춘 연구개발(R&D)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LG전자는 이날 현지 R&D 인재와 박사급 전문인력을 초청해 회사의 미래 사업 전략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는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스



류재철 LG전자 CEO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LG전자 우수 인재 채용 프로그램 ‘북미 테크 콘퍼런스’에서 HVAC, 모빌리티,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LG전자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탤포드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UC버클리 등 미국 주요 대학·연구기관의 박사과 연구원을 비롯해 현지 빅테크 및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R&D 경력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LG전자에서도 미래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경영진과 기술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류CEO를 비롯해 김병훈 최고기술

책임자(CTO), 송상호 최고인사책임자(CHRO), 정기현 HS플랫폼사업센터장, 오세기 ES연구소장, 이상용 VS연구소장, 김영준 인공지능연구소장, 김동욱 SW센터장, 송시용 로보틱스사업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류CEO는 이날 엔지니어로 LG전자에 입사해 사업부장과 사업본부장을 거쳐 C

EO에 오른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경영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류CEO는 “LG전자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가전과 올레드 TV, 텔레매틱스 등 기존 주력 사업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공유했다. LG전자는 상업용 HVAC와 모빌리티,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모빌리티를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성장 분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로봇 플랫폼과 로봇 지능, 데이터 역량을 결합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차량(AIDV)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을 기반으로 차량용 지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그동안 축적한 제조·생산 데이터와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 수억 대의

제품에서 확보한 고객·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피지컬 AI 사업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HVAC와 전장 분야의 기술력, 누적 10억대 이상의 핵심부품 제조 경험을 결합해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럼 계열사 및 로보틱스 자회사와의 협업도 활용한다. 자체 사업 역량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LG전자는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 활동도 이어간다. 이달 9일부터 MIT와 케네디켄넬대, 미시간대, 퍼듀대, 일리노이대 어바나-섀페인, 위스콘신대 매디슨 등 주요 대학을 순차적으로 찾아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로봇과 생산기술, 전기전자 등 분야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미래 성장사업을 담당할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정유 4사, 액침냉각유 사업 속도낸다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유 인증·실증
실제 제품공급 사례도 나오고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함께 국내 정유 4사의 액침냉각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능 GPU 서버의 발열량과 전력 밀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공랭식을 보완할 액체 기반 냉각 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엔부브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은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유를 개발해 서버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사를 대상으로 인증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을 마치고 제품 공급에 들어간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액침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유에 서버를 직접 담가 열을 식하는 방식이다.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공기로 식하는 기존 방식보다 열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 고성능 GPU가 집적된 AI 데이터센터의 냉각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약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냉각에 투입되는 전력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SK엔부브는 2022년 미국 액침냉각 기업 GRC에 지분을 투자하며 국내 정유업계에서 처음으로 관련 시장에 진출했다. 2023년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유를 적용하며 상용화의 포문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LG전자, GRC와 함께 액침냉각 솔루션 개발 및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LG유플러스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액침냉각 기술을 실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네이비클라우드에 관련 제품을 공급했으며 에스오일은 고발열 GPU 서버 환경에서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액침냉각유 상용화의 관건은 냉각 성능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서버와 배터리 내부의 금속·플라스틱·고무 소재에 장기간 접촉해도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정유사들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장비와 냉각유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과 실증을 거치더라도 액침냉각유가 정유사의 실적에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품을 적용할 서버와 배터리 시스템이 확대돼야 하고 고객사의 관련 설비 투자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액침냉각유 사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고객사 수요가 늘고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돼야 한다”며 “현재는 기술개발과 협력체계를 이어가면서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대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SK온, 네오볼타 파워에 배터리 셀 공급… 美 ESS 사업 ‘청신호’

5년간 9GWh 규모 공급계약 체결

SK온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주로 북미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장기 수요처를 확보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률 상승과 실적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SK온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SK온 관훈캠퍼스에서 미국 ESS 기업 ‘네오볼타 파워(NeoVolta Power)’와 ESS용 배터리 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네오볼타 파워에 총 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용 LFP와

우치형 배터리 셀을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서 생산돼 네오볼타 파워가 출시할 ESS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네오볼타 파워는 미국 조지아주 팬더그래스에 생산시설을 둔 ESS 제조기업으로 미국 에너지 기술기업 네오볼타의 자회사다. SK온은 네오볼타 파워가 선보일 LFP 파우치형 배터리 기반 ESS 제품의 핵심 셀 공급을 맡는다.

5년간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미국 생산시설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용 하이니켈 배터리에 집중됐던 제품군을 ESS용 LFP 배터리로 넓히고 북미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사는 배터리 셀 공급을 넘어 ESS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K온은 연내 별도 계약을 통해 네오볼타 파워 측에 추가로 9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셀을 사급 구조로 제공하고 네오볼타 파워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팩 제품으로 구매하는 방식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양사 간 사업 협력 규모는 총 18GWh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의 미국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지 생산 역량과 고객 수요에 맞춘 배터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과 사업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광재선 “100년 기업 위한 미래사업 육성”

(KG그룹 회장)

KG그룹 창립 41주년 기념식

‘KG모빌리티 플랫폼’ 출범 세리머니

“41년 신뢰와 도전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10년의 첫걸음을 내딛자.”

광재선 KG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진행된 KG그룹 창립 41일주년 행사에서 100년 기업을 위해 미래 성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9월 1일 창립 41주년을 맞는 KG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창립 초기의 도전부터 자동차·철강·화학·금융·미디어·교육·문화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온 성장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10년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KG그룹 임직원 및 가족, 장학생, 협력사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KG그룹의 새로운 가족사가 된 ‘KG모빌리티 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광 회장이 KG모빌리티 플랫폼의 금장 명패를 그룹가



광재선 회장이 KG그룹 창립 4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KG그룹

족사명패함에 안착시키고 사기를 전달하면서 그룹의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공식화했다.

KG그룹은 KG모빌리티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자동차 제조 역량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가족사 간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축적된 기술과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도 발굴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홍은희 수소사업본부장 영입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에너지 수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옛브리타니 페트롤리엄) 출신의 에너지 사업 전문가 홍은희 부사장(사진)을 신입 HMG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험과 전략을 갖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에너지 및 수소 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사업화 추진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신입 홍 부사장은 시장 기회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온 글로벌 에너지 사업 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홍 부사장은 P&G 코리아, 한국수출입은행을 거쳐 18년간 bp에서 근무하며 석유, LNG, 수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사업 개발, 전략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해 왔다.

특히 홍 부사장은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글로벌 에너지·수소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획·운영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홍 부사장의 실행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래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생태계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최태원 “한·일 경제연대 만들자”… AI·공급망 협력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단순 교역 넘어 산업생태계 확장
양국 GDP 합계 6조달러 강조
AI·첨단산업·에너지 협력 제시
핵심광물·LNG 공급망 협력 강화
한일상의 공동성명 내년 인천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의 단순 교역을 넘어 양국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한일경제연대’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공동 실천 과제를 발굴한 뒤 이를 투자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31일 일본 샌다이 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앞으로의 한일 협력을 서로 더 많이 사고파는 관계로만 보서는 안 된다”며 “각자의 시장과 산업을 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일경제연대”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



제15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년을 맞은 데 이어 올해를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 평가했다. 일본 나라와 한국 안동을 오간 양국 정상의 서투의 교류 통해 경제·사회 분야뿐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안보 등으로 협력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이를 투자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경제인들의 역할”이라며 “경제

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인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현실적인 해답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대, 첨단기술 경쟁 심화도 한일경제연대가 필요한 배경으로 꼽았다. 좋은 기술과 제품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지면서 시장 규모와 공급망, 에너지와 자원까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 내수시장 축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인구와 시장이 함께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각자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혼자 만들기 어려운 시장은 함께 만들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은 나누고 서로 잘하는 것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와 시장, 기술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서로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한쪽의 강점으로 다른 쪽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6조 달러를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시장이 점점 블록화되고 내부 시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 한 일이 서로의 시장을 넓혀주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협력할 분야로는 AI와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스타트업 등을 제시했다.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과 스타트업 상호 투자, AI 데이터

공유 등도 추진 가능한 과제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협력 가능성을 하나씩 구체화하면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고 한일 경제계의 신뢰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실천 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일본상의가 ‘지역에서 열어가는 한일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최 회장과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을 비롯한 양국 지역상의 회장과 기업인들은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상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의 상호 유통을 추진하고 AI·반도체·클린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한일상의 회장단 교류는 1985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40여년간 이어져 왔다. 제 16회 회의는 내년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마지노, 한국 차 앞세워 글로벌시장 도전

LIPS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반 마련
아마존 입점·글로벌 쇼핑몰 구축
美 박람회서 잠재 거래처 80곳 상담

토종 차 브랜드 소기업이 ‘한국 차 문화’를 세계시장에 선보이며 당찬 도전을 하고 있다.

주인공은 프리미엄 차 전문 브랜드 ‘Magpie&Tiger’를 내놓은 마지노다.

특히 마지노는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계한 ‘립스(LIPS) 프로그램’ (LIPS)을 통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사명은 ‘마지노선(Magnot Line)’에서 따왔다.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LIPS(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enterprise)는 지정 한 민간 운영사가 먼저 투자하면 정부자금을 매칭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신제품 개발 및 사업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육성 사업’이다.

김세미 대표가 2018년 창업한 마지노는 하동과 제주 등지의 한국 차를 비롯해 동



마지노 김세미 대표.

아시아의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국내 시장에서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선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맞는 준비, 홍보, 새로운 판로 확보가 필요했다. 이때 김 대표는 LIPS 지원 사업을 만났다.

먼저 30여 종의 제품을 새롭게 촬영해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 제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를 마련했다. 이를 아마존과 글로벌 온라인 쇼핑

몰, SNS 등에 활용하며 해외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릴 준비도 갖췄다.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다. 현지 판매에 필요한 등록과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했다. 또한 미국 소비자의 취향과 구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체험단 운영을 통해 시장조사를 진행하며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판매 전략을 구체화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의 속도를 높였다. 올리브영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플랫폼 ‘올리브베리’ 광화문 1호점에 입점해 첫 달 브랜드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준비를 마친 마지노는 이제 실제 미국 소비자와 만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아마존 판매 결과 평균 4.7점의 높은 평가와 58건의 해외 고객 리뷰를 확보했다.

지난 4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월드 오브 커피(WOC)’ 박람회에서 현지 로스터리와 카페, 유통업체 등 약 80개 잠재 거래처와 상담을 진행해 이 가운데 1곳과 정식 계약도 체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소영 “불합리한 규제 건어낼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벤처·스타트업 규제방식 전면 개선
“다시는 ‘타다’ 같은 일 없도록 할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데 역량을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업무지원실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벤처스타트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기부

업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후적인 규제, 전면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만큼 이런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 방식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김승호 기자

에코프로비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속도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생산 기술 개발

에코프로비엠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부터 배터리 셀 실증·검증까지 아우르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료·소재·셀로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마련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6일 경기도에서 정부의 ‘슈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과 킥오프 미팅을 열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슈퍼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통상

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달 초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5개 회사를 슈퍼를 기업으로 선정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며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다. 원료 업체에서 고순도 황화리튬(Li2S)을 공급받아 결정성 제어와 불순물 제거, 입도 균일화 등 양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발한 고체전해질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에 공급된다. 셀 업체는 이를 전고체 배터리 셀에 적용해 성능을 실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원료 공급부터 소재 개발, 셀 적용 및 검증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원관희 기자

中企 850만개 육박… 대표 32% 60대 이상

1년새 20만637곳 늘어 2.4% 증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가 1년새 20만 637개(2.4%) 늘어 2024년 현재 850만개에 바짝 다가섰다.

이 가운데 3곳 중 1곳인 31.7%는 대표자 나이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모습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 종사자수 비중은 80.4%로 전년도와 같은 ‘9980’을 유지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전년(829만8915개) 대비 2.4% 증가한 849만9552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숫자는 중기부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0년부터 점점 늘고 있다.

728만6023개(2020년)→771만3895개(2021년)→804만2726개(2022년)→829만8915개(2023년)에 이어 2024년에는 850만개에 육박했다. 중기부는 2020년 이후 관련 통계 작성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공사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中企 AX에 14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신설한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트랙 I 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대전환(AI)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트랙으로,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1400억원으로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AI 시상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W·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술·제품 및 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말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역
부총리상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접수마감 : 2026. 9. 30.(수)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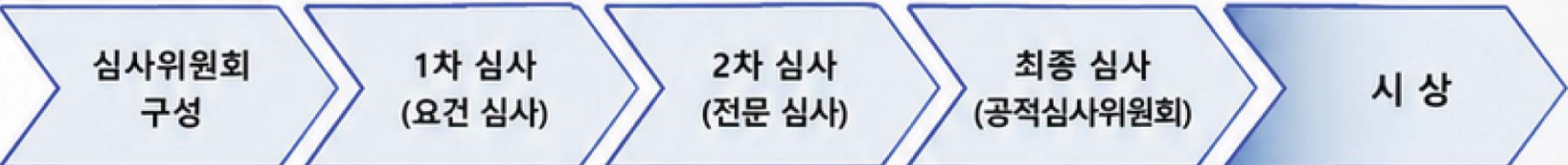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awards@kswict.or.kr)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세부사항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 :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www.kswict.or.kr)에서 확인·다운로드

시상 : 2026년 11월 예정

심사 절차



문의 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02-858-8510)

KT, 금융 AICC에 에이전트 심는다… 상담 넘어 업무까지

〈인공지능 컨택센터〉

AICC 인프라 활용해 비용 최소화
챗봇·상담봇 등 다른 AI 서비스 연결
상담 맥락 이어 끊임없는 상담 구현

KT가 금융권 에이전틱 인공지능컨택센터(AICC)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에 기업 고객이 구축한 AI 챗봇·보이스봇 등 AICC에 에이전트를 접목해 시스템 구축 부담을 낮추고 업무 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지난 31일 KT는 우리은행의 ‘AI 챗봇 및 상담봇 재구축’ 사업 수주와 함께 에이전틱 AICC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금융권 에이전틱 AICC 전환을 통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수주는 우리은행이 운영 중인 비대면 고객 상담 채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에이전트를 기존 금융 비서인 AI 뱅커와 연계해 업무 처리 기능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고객이 상담 과정에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기존 상담을 바탕으



KT 에이전틱 AICC 보이스 에이전트 기능 데모.

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에이전트와 연계해 고객 문의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처리까지 지원하는 에이전틱 AICC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KT가 우리은행에 공급하는 솔루션은 ‘KT 에이전틱 AICC’다. 기존 챗봇·보이스봇이 수행하는 단방향 대화에서 문맥 기반 대화가 가능하고, 고객이 상담 도중 주제를 변경하더라도 이전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는 점에서 기존 AICC와 한층 고도화된 솔루션이다.

에이전틱 AICC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모듈은 자연어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시나리오 자동화 어시스턴트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보이스 에이전트 등이 있다.

KT의 하영성 에이전트 AICC 사업팀장은 “보이스 에이전트는 음성 자연이 발

생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입력 판단 응답 기능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해서 빠르고 자연스러운 처리가 가능하다”며 “보통 고객 중 40대 후반 고객들이 음성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상담 품질을 고도화하는 ‘에이전트 커넥터’ 모듈도 있다. 이번 우리는 행 챗봇 재구축 사업에서 활용될 핵심 기능이다. 챗봇, 상담봇, AI 뱅커 등 서로 다른 채널과 서비스를 연결해 고객의 상담 맥락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이어준다. KT의 금융권 내 AICC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금융권 총 70개 기업 중 61개 기업에 챗봇, 보이스봇, 상담 어시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4곳에 해당 솔루션을 구축했다.

KT는 금융권에 구축한 기존 AICC를 에이전틱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 고객은 중복 투자 우려와 긴 리드 타임 등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 구축한 AI 서비스의 기존 시나리오를 과도한 비용 투자 없이 연결하고,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서비스 중단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향후 ‘에이전틱 온플랫폼’을 기반으로 AICC 신규 사업 영역도 확장한다. 상담 지원 솔루션에서 소개인화·마케팅·업무 처리 등 영역으로 넓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전체 업무 커버리지를 30%에서 60%로 2배 늘리고, 상담 완결율도 75%에서 8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에이전틱 온플랫폼에 대한 〈메트로경제신문〉 질문에 서동철 AX플랫폼개발 담당 상무는 “KT의 구축형 레퍼런스가 30여개가 넘는데 이처럼 인공지능 전환(AX) 서비스 대부분을 KT가 직접 구현하고 있다”며 “고객사 요구에 따라 LLM 오픈스, 에이전트오픈스 등 모듈을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메타 글래스로 찍으면 에이닷이 알아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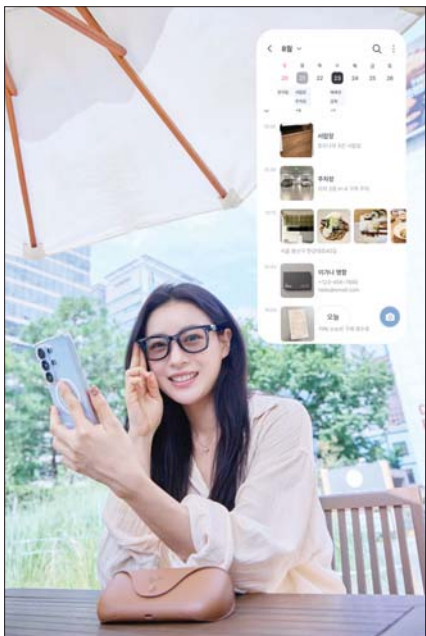
SKT, ‘에이닷 로그’ 기능 연동
민감정보는 자동으로 마스킹·분석

SK텔레콤이 메타 인공지능(AI) 글래스가 촬영한 명함, 영수증 등 내용을 휴대폰 단말기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메타 AI 글래스와 자사 ‘에이닷 로그’ 기능을 연동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에이닷 로그는 사진 속 정보를 AI가 분석해 제목과 설명,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기록 형태로 관리하도록 돕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공연 포스터를 촬영하면 공연명과 일시, 장소 등을 기록으로 정리한다. 시간과 키워드로 필요한 기록을 검색하거나, 자동 생성된 태그를 기준으로 관련 기록을 모아 볼 수 있다.

에이닷 로그는 ▲명함 ▲영수증 ▲화이트보드 ▲회의자료 ▲주차위치 ▲포스터



SK텔레콤이 메타 AI 글래스와 자사 ‘에이닷 로그’ 기능을 연동한다. /SK텔레콤

등 사진의 유형을 자동 분류한다. 특히 메타 AI 글래스 이용자는 에이닷

앱 좌측 상단의 에이닷 로그 화면에서 자동 연동 기능을 설정하면 촬영한 사진을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레이벤 메타 젠2을 비롯한 메타 AI 글래스 전 기종과 연동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에이닷 로그 내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에이닷 로그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사진에 포함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마스킹한 뒤 분석한다. 사진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 단말에만 보관한다.

SK텔레콤은 향후 에이닷 노트와 에이닷 로그를 연동해 사진과 메모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기록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이닷 로그는 에이닷 앱 업데이트를 통해 안드로이드 O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LGU+, 지역난방 시설에 AIoT 적용

지역난방공사와 업무협약

LG유플러스는 지난 31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집단에너지 분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는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과 전기를 공동주택·업무시설·상업시설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온수 형태로 열수송관을 통해 공급하는 지역난방이 대표 사례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관제 플랫폼 운영 경험과 IoT 통신 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시설 운영 경험을 결합해 AIoT 기반 예지보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실시간

으로 감지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는 ▲지반침하 사전 감지 ▲열수송관 미주전류 탐지 ▲수배전실 등 위험 시설의 물리보안·관계 강화 기술을 실증한다.

지반침하 감지에는 양사가 공동 개발한 지중지열 원격감지 단말의 기술이 센싱 기술을 활용한다. 열수송관 매설 지점의 기술기 사변화와 진동 세기를 센서로 실시간 수집하고, AI로 분석해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열수송관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주전류도 감지한다. 배관별 전류 밀도와 주파수 등을 분석해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부식 위험 지점을 조기에 식별하는 솔루션을 검증할 예정이다. 향후 미주전류를 안전한 위치로 배류하는 작업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서 권용현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오른쪽), 정병성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의 자동화 방안도 검토한다.

감전과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수배전실에는 AI 기반 물리보안 기술을 적용한다.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24시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작업 이력 관리와 출입문·함체·서버랙 등 핵심 설비의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조민선 기자

엔씨, 게임 장르 다변화로 글로벌 승부수

신작 FPS ‘라이크 오어 다이’ 공개

엔씨(NC)가 팀 기반 서바이벌 FPS 신작 ‘라이크 오어 다이(Like or Die)’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게임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엔씨는 최근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6’ 개막 전야 행사 ‘오픈닝 나이트라이브(ONL)’에서 ‘아이온2’, ‘신디시티’와 함께 라이크 오어 다이의 정식 타이틀과 플레이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라이크 오어 다이’는 이용자가 게임 속 스트리머가 돼 생존 경쟁을 벌이는 팀 기반 서바이벌 FPS다. 팀원들과 협력해 최후의 한 팀으로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전장에서 자원을 수집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블록’을 이용해 구조물을 만들어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밝고 캐주얼한 그래픽과 방송 중계 콘셉트를 결합해 글로벌 이용자층을 겨냥했다. 엔씨는 브랜드 웹페이지와 스팀 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고 세계관 트레일러도 공개했다.

엔씨는 최근 기존 MMORPG 중심에서

벗어나 장르와 지식재산권(IP)을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호라이즌 스릴 프론티어스’가 대표적이다. 소니의 글로벌 IP ‘호라이즌’을 기반으로 엔씨가 개발하는 MMORPG로, 원작의 헌팅 액션에 협동 중심 전투를 결합했다.

서브컬처 시장도 공략한다. 다나미스원이 개발하고 엔씨가 퍼블리싱하는 RPG ‘아스트라에 오리티오’는 최근 일본 코믹마켓에 참가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했다. 정식 출시 전 선보인 티저 아트북 등 주요 굿즈가 이들 연속 완판됐으며 현재 비공개 베타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할 예정이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엔씨의 해외 시장 확대 전략과 맞물려 있다. 엔씨의 올해 2분기 해외 매출 비중은 52%로 4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엔씨는 MMORPG를 넘어 FPS와 서브컬처 등으로 장르를 확대하고 글로벌 IP까지 활용하면서 해외 이용자 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조민선 기자

통신 3사, PASS QR 신분증 인증 독려

보안 기술 적용해 위·변조 방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를 활용한 신분증 인증 독려 캠페인 ‘QR 한번, 안심 두 배!’를 진행한다.

최근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가장한 앱이나 합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통신 3사는 신분증 진위 여부를 육안으로만 검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패스를 활용한 신분증 검증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패스 앱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

는 모바일 인증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에서 신분증 인증은 ▲개통·단말 정보 점유 확인 ▲캡처 방지 ▲동적 이미지 ▲검증 시간 제한 등 보안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고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5일까지 통신 3사가 공동 진행한다. 이 기간 중 패스 앱에서 QR 인증 기능을 활용해 상대방의 신분증을 검증하거나, 본인의 PASS 신분증 QR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연다.

/조민선 기자

韓 증시, 빛 활용한 매수 급증… 삼성·SK 신용잔고 10조 넘겨

주가 상승분 비해 용자 증가 가팔라
조정 국면 진입시 투자자 부담 가중
HBM 경쟁 등 반도체시장 변화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8월 들어 반등했지만, 이를 따라붙은 신용융자 증가 속도는 훨씬 가팔랐다. 두 종목의 주가는 이달 6~8% 올랐지만 신용잔고는 최대 30% 넘게 증가했다. 주가가 아직 52주 최고가를 크게 밀도는 상황에서 빛을 활용한 매수만 빠르게 늘면서 향후 조정 국면의 부담도 함께 커진 모습이다.

◆ 주가 상승 앞지른 빚투… 반도체 쏠림 더 깊어져

31일 금융투자협회와 코스콤 CHECK를 분석한 결과 지난 28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는 총 10조 387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8조 4700억원에서 1조 9178억원(22.6%) 늘어난 규모다.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이 기간 4조 2466억원에서 5조 5382억원으로 1조 2916억원(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23만 9500원에서 31일 26만원으로 8.6% 올랐다. 주가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신용잔고가 불어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신용융자가 쌓인 가운데,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보이며 7000선 아래에 머무는 상황. 증권가에서는 양사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SK하이닉스도 주가보다 신용잔고 증가율이 높았다. 신용잔고는 4조 2234억원에서 4조 8496억원으로 6263억원(14.8%) 늘었다. 주가는 156만 7000원에서 167만 4000원으로 6.8% 상승했다.

두 종목은 지난 28일 동반 급락한 뒤 31일 소폭 반등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2%, SK하이닉스는 1.3%가량 올랐지만 고점과의 격차는 크다. 삼성전자는 52주 최고가인 37만 4500원보다 30.6%, SK하이닉스는 298만 7000원보다 44%가량 낮다.

주가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거래만 빠르게 늘어난 만큼 반도체주가 다시 조정받을 경우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추가 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시장 전체로 봐도 8월 신용거래 증가세는 가팔랐다. 국내 증시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3일 27조 4438억원에서 28일 33조 3380억원으로 5조 8942억원(21.5%)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신용잔고는 같은 기간 21조 6141억원에서 26조 3861억원으로 4조 7720억원(22.1%) 늘었다. 전체 신

용융자 증가액 가운데 코스피에서 발생한 금액이 81.0%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늘어난 1조 9178억원은 코스피 신용잔고 증가액의 40.2%에 해당한다. 지난 28일 기준 두 종목의 합산 신용잔고는 코스피 전체의 39.4%, 국내 증시 전체의 31.2%를 차지한다.

신용잔고 증가 자체보다 특정 대형주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방향을 좌우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두 종목의 주가 변동이 신용투자자의 손실과 지수 하락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 투자자에게 자금과 코스피 거래대금이 줄어든 점도 부담이다. 현금성 대기자금과 거래 활력은 약해졌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신용거래 규모는 확대됐다. 지수를 밀어 올릴 신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주가 등락 폭이 커질 수 있다.

◆ HBM4 경쟁 등 시장 시각 변화

두 종목의 주가를 함께 묶어 평가해 온 시장의 시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HBM4 출하와 수율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SK하이닉스가 누려온 시장 지위와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

됐기 때문이다.

이날 LS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올리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는 33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약 27% 낮췄다. 다만 투자의견은 두 종목 모두 '매수'를 유지했다.

정우성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HBM4 출하 비중이 올해 1분기 5%에서 2분기 35%로 높아지고 수율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공급 확대가 SK하이닉스의 공급자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SK하이닉스의 2027년 HBM 영업이익률 전망을 80%에서 60%로 하향했다.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인될지도 양사 주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일에는 미국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면 잭슨홀 미팅 이후 확산한 금리 인상 우려가 누그러질 수 있다. 반면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 경우 미국 국제금리 상승과 외국인 수급 악화가 겹치면서 신용잔고가 집중된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증권가, '삼바 유상증자' 시선 엇갈려… 목표주가 '출렁'

인수·투자 활용에도 우려 상존
최대주주 청약참여 여부 변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원대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조달 자금은 스위스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PPG) 인수와 시설투자에 활용될 예정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31일 애프터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8곳 중 3곳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목표주가를 190만원으로 올렸지만 유상증자 결정 이후 180만원으로 다시 낮췄다. 키움증권도 2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DS투자증권도 19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지분 희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석 효과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며 "차입 대신 대규모 자본 확충을 선택한 것은 재무 구조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차입 여력을 향후 생산능력(CAPA) 증설 등의 재원으로 남겨두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227만주를 발행해 약 3조원의 투자 재원

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발행주식의 4.9% 수준이다. 조달 자금 가운데 2조 7000억원은 PPG 인수에 투입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증자 비율은 기존 발행주식의 4.9% 수준이지만, 시장에서는 주주까지 희석을 우려한다. 상반기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금성자산은 약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우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사업의 진행 상황과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완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짚었다.

자금조달 전략이 한 달여 만에 바뀐 점도 주주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20일 PPG 인수 발표 당시 차입·회사채 발행·유상증자 등을 검토하면서도 유상증자는 가장 후순위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영증권은 항체 CDMO 시장의 성숙화와 차세대 모달리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5공장·미국 공장의 수주 및 가동률, ADC CDMO 수주 상황, 6공장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투자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표한 자본지출(CAPEX) 투자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의 이해도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도 변수다. 유증 물량 가운데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지분율 43.06%)과 삼성전자(지분율 31.22%)는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으며, 양사가 배정 물량을 전량 청약할 경우 전체 유증 물량의 60% 이상을 소화하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그룹의 지원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회사의 신용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투자증권 '신한 SOL 로보 연금' 출시

AI 기반 퇴직연금 자동투자 서비스

신한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자동투자 서비스인 '신한 SOL 로보 연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 SOL 로보 연금'은 고객이 투자성향을 선택하면 AI가 ETF 자산배분, 종목 선정, 리밸런싱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다. 고객은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가운데 투자성향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자산운용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퀀트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모델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식, 채권, 대체자산 간 자산배분 비중과 편입 ETF를 결정하며, 주기적인 학습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운용 대상은 국내 상장 ETF 중 IRP 계좌 편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서비스는 매월 정기 리밸런싱을 실시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추가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연금 개시 전 IRP 고객은 최소 100만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투자 한도는 최초 신청일 기준 계약연차에 따라 연 900만원씩 확대되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이 고객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첫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연금 투자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은 서비스 출시에 앞서 2023년 12월부터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동일 전략을 기반으로 모델을 중단 없이 운용하며 성과를 검증해 왔다.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공시 기준 누적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66.85%, 위험중립형 45.57%, 안정추구형 24.63%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증권업계, 1조 규모 벤처 세컨더리 투자 추진

금투협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계획

증권업계가 벤처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1조원을 세컨더리 시장에 투입한다. 기업공개(IPO)에 편종된 회수 경로를 넓혀 회수 자금이 다시 벤처·혁신기업으로 유입되는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과 함께 약 1조원 규모의 벤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컨더리 투자는 기



금투협 회장

존 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기업 주식이나 벤처펀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투자는 증권사별 개별투자와 업계 공동펀드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별투자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영위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7곳을 중심으로 6185억원 규모로 추

진한다. 참여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향후 발행어음 사업자가 추가로 인가받아 투자에 참여하면 개별투자 규모는 약 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펀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상위 15개 증권사와 금투협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참여한다.

금투협은 공동펀드 운용기관 선정 공고를 거쳐 최종 운용기관을 정하고 출자약정 체결을 마친 뒤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벤처기업 투자자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수된 자금의 재투자를 촉진해 벤처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황성업금투협 회장(사진)은 "증권업계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19년 만에 첫 삽 뜬다… ‘인천 내항’ 해양문화공간 탈바꿈

실시계획 승인으로 착공 절차 마무리
43만7000㎡ 부지에 6370억 투입
공원·문화·관광·상업 복합공간 조성
이르면 4분기 착공 2029년 완공
지방정부 참여 전국 첫 항만재개발

인천의 한 노후 항만이 도심 인근의 해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이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두를 새 해양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9년 만에 착공 하기가 났다. 그간 보안구역으로 묶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다.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지난 20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간 논의·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내항 재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은 것.

이 사업은 19년 전 시민 청원에서 비롯됐으나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이후 최근 약 2년 만에 타당성조사와 정부 실시협약 체결,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됐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여하는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 해양·문화공간으로의 변모를 위한 첫 삽을 드디어 눈앞에 뒀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 중구 북성동과 항동 일대 43만7000㎡(13만2000평)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 637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항만공간을 공원·녹지와 문화·관광·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해양도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착공에 공사 기간은 36개월 내외로 예상된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컨소

시엄'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항만 보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탓에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내항의 해안 공간이 단계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항만과 원도심 사이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천 원도심 재생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항의 역사성 및 장소의 특성을 살리면

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계획을 넘어 실제 공사 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내항이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자 인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해양 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컨소시엄(인천광역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계획을 보완해 수립했다.

정부가 확정된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 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차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건립한다.

특히 인천항 개항의 역사를 간직하게 될 '문화복합 시설'의 경우,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도심지구'는 지역의 안정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다.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정주 기능을 갖추고 생활지원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재현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 재개발을 통해 인천항 내항 1·8부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해양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ys@metroseoul.co.kr



metro

산업R&D 사업화·수출에 7050억 지원

산업부, 우수과제 기업 금융문턱 낮춰
기보 4050억·무보 3000억 보증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100억 한도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의 실증·양산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7050억 원 규모의 대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31일 R&D 과제 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산업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기술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총 470억 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맞춤형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보는 향후 3년간 4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 전체가 아닌 R&D 성과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자금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억 원(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0억 원)의 운전자금을 100% 보증비율과 감면된 보증요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무보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R&D 혁신기업 수출입 보증'을 지원한다. 수출 준비 자금이나 원자재 수입자금에 대해

최대 100억 원 한도로 100% 보증과 보증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이나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에는 최대 2.5배의 특별 한도가 부여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시중은행, 정책보증기관, R&D 전문기관의 협업으로 마련된 7,0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동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R&D 성과가 기술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매출과 수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R&D 기술금융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기보나 무보의 보증심사를 거친 후,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KPS, 30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5개 참가팀 모두 금·은·동상 수상
정비시간 단축·위험지수 개선 호평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인 한전KPS가 산업통상부 주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품질보합경진대회)에서 30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전KPS는 지난 24일부터 닷새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현장개선, 안전품질, 사무간접 등 3개 부문에 5개 팀이 참가해 모든 팀이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개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씨앗분임조는 '원자로건물 공기순환 냉각공정'을 개선, 정비시간을 53.27% 단축해

▲인력운영 효율성 ▲원가절감 ▲정비환경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둬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안전품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Perfect 분임조는 '화력발전 소내 전력설비 정비공정'을 개선하여 위험지수를 39.53% 감소시켜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PDCA(계획-실행-점검-환류) 관점의 개선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고품질·무결점 책임정비를 통해 발전설비의 안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객 가치를 창출한 노력이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수상을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으로 더욱邁進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댐 주변 농특산물, 모바일 판로 확대

수자원공사, '로컬마켓' 상시 판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댐 주변 지역 농가의 판로를 일회성 대면 행사에서 모바일 기반의 상시 직거래 체계로 대폭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28일~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귀농·농촌 종합 박람회 '2026 에이팜쇼(A FARM SHOW)'에 참가해 댐 주변 지역 농특산물 전용 직거래 창구인 '로컬마켓'을 공식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본사와 유역본부 단위로 정례 대면 장터인 '이음장날'을 운영하며 지역 농가의 판로를 지원해 온 수자원공사는

이번 로컬마켓 개설을 통해 상시적인 온라인 판로를 확보했다. 댐 주변 상생 전용 앱인 '로컬 바이브'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와 직접 연결, 농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댐 수변공간과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인 '댐 로컬브랜드'도 본격 추진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용담댐) 보물찾기 축제와 경북 안동시(안동댐) 마라톤 페스티벌 등 특화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특히 1호 선도시업인 '트레저헌터 in 진안'은 지난 29일 출정식을 갖고 오는 9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8일~30일까지 열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에이팜쇼(A FARM SHOW)'에 참석해 댐주변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마켓 Zone'을 살펴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19일까지 3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전용 앱 '로컬 바이브'를 활용한 미션형 보물찾기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지역별 인력수급 빅데이터 분석

각 농촌 지역 및 재배작물의 특성에 맞춘 외국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근로자 체류자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다는 제언이다.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협 빅데이터플랫폼의 '농작물 출하량 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의 '등록외국인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별 주력 작물의 수확 주기와 외국인 인력의 체류자격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작물 재배 지역에는 단기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E-8)'가 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중 지속적인 관리와 작업이 필요한 지역에는 '비전문취업자(E-9)'가 활용됐다.

실제로 ▲상주(포도) ▲진주(딸기) ▲보성(감자) 등 수확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지역은 계절근로 인력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천안(배) 등 연중 상시적인 재배·관리가 필요한 작물의 출하량이 많은 지역은 비전문취업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주요 6개국 출신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전남 국립의대 후보에 순천대… 교육부 최종 결정만 남았다

전남지역 36년 숙원 ‘국립의대’
지역상생협력회의 열고 뜻 모아
통합특별시의 의료 격차 축소 목표

옛 전남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지역 정치권은 의대 유치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역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결과에 수용하기로 합의해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30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년 개교 예정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에 순천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획득해 순천대가 1.3점 높은 점수로 최종 후보대학에 선정됐다. 심사 항목으로는 교육부가 제시한 추진 계획서 항목 중 의대 신설 추진 체계, 의대 교육시설 확보 계획, 교육병원 확보 계획, 의대 교원 확보 계획, 의대 및 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5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의대 교원 확보 계획 평가에서 목포대가 20.55점을 받은 반면 21.72점을 받은 순천대가 1.17점을 앞서 결정적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인 승패를 갈랐다.

심사위원들이 도시에 위치한 순천대의 정주 여건을 무안군에 위치한 목포대보다 높게 평가해 결국 교원 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사위원은 전남광주를 제외한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 단위 의료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의대설립, 임상, 기초의학, 공공의료, 병원 운영 등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날 순천대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정원 100명 규모의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100명을 놓고 전남광주의 순천대, 경북 경국대를 대상으로 최종 의과대학 신설 대학을 결정한다.

민형배 통합시장은 “지금부터는 국립의대를 실제 우리 지역에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양 대학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

했다. 이어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통합특별시에 사는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이 지난 30일 의대 선정이 대학과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역상생협력회의를 갖고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지역 수용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날 오후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권항엽·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손훈모 순천시장, 특별시의원 등이 장흥에서 회동을 갖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를 지역 화합과 통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만들자 데 뜻을 함께 했다. 또 공정한 심사를 함께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사천~진주 정촌 도로 예타 통과

우주항공 교통망 확충 탄력
사천시, 2718억 국비 투입

경남 사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천~진주 정촌 간 도로 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필요한 광역 교통망 확충에 탄력이 붙게 됐다.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읍 구암리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를 연결하는 사천~진주 정촌 간 도로 개설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18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6.1k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특히 이번 예타 통과로 사천시는 대규모 지방비 부담 없이 우주항공청과 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기존 국도 3호선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지만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해 왔다.

새 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돼 사천~진주 간 이동시간 단축과 상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과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향후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

서울 달군 영양고추… 60억 ‘판매고’

페스티벌 방문객 15만명

영양군이 서울 도심에서 영양고추의 수도권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에는 15만명이 찾았고 현장 판매와 TV 홈쇼핑 및 예약주문을 합친 매출은 60억원

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는 ‘K-매운맛의 원조, 영양고추 살아있네’를 주제로 수도권 소비자에게 영양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견고추에서 위생성과 품질을 갖춘 고춧가루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도전

내년 10월경 가입 목표

포항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미식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최종 선정돼 2027년 10월경 유네스코 파리 본부의 최종 가입을 목표로 국제심사 준비에 나선다.

포항시는 지난 2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7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추천도시 심사에서 미식 분야 추천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4월 미식 분야 국내 예비회원도시 승인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해 미식 창의도시의 방향도 구체화해

왔다.

포항시는 바다와 어촌, 항구와 시장을 중심으로 이어진 미식문화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경험, 시민의 일상이 축적된 문화자산으로 보고 이를 산업과 관광, 도시공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변화 등 해양도시의 공통 과제에 대해 세계 창의도시들과 해법을 모색하고, 기존 창의도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가치를 만들고, 세계 창의도시들과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해양미식도시’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월리와 함께 경주 보문호서 ‘나이트런’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 기념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10월 31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보문 나이트런 with 월리’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10km 러닝과 5km 슬로우 러닝 등 2개 부문에 총 5,0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와 협업해 참가자들이 월리 복장을 하고 보문호 일대를 달리거나 걷는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보문관광단지 주요 관광시설과 보문호 일대를 지나며 경주의 야경과 호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현장에

는 월리 캐릭터 포토존과 참여형 이벤트,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개최 1주년을 기념해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놀이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플러스스토어 앱을 통해 진행 중이다. 5km 슬로우 러닝 코스는 예매 첫날 조기 마감됐으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0km 코스도 빠른 속도로 매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호반 경관과 관광 인프라에 러닝, 글로벌 캐릭터 IP(지식재산), 야간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경주를 대표하는 야간 스포츠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방침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1.005명

경남 진주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005명으로 나타나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1.00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01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0.912명) 대비 0.09명 증가(10.2%)한 것이다. 또한 전국 평균(0.799명)과 경남 평균(0.8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시는 2025년 ▲결혼·임신·출산 ▲양육·교육·돌봄 ▲일자리·소득 ▲생활환경 ▲고령사회 ▲인구변화 대응 등 6개 분야에 315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울릉군과 관광 활성화 MOU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가 울릉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지역 간 민간교류 확대에 나섰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울릉군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포항시와 울릉군이 지난 2023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양 지역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남한권 율릉군수와 황진일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

내달 ‘현금없는 버스’ 시범운영

부산시는 현금 사용 감소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석 달간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금 이용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대상 버스는 총 35개 노선 542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약 20% 수준이다.

시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불편 사항과 승객의 대체 결제 수단 이용 현황, 운수종사자·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 사항을 보완한 뒤 전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체 결제수단 마련과 사전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완도군

지역상품권 최대 20% 할인

전남광주 완도군은 9월 한 달간 추석 민생을 챙기기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상향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류형은 12%에서 17%로 카드·모바일형은 15%에서 20%(할인 금액 사용 후 캐시백 적립)로 할인율을 높였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으며,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을 합산해 월 70만원까지, 지류형은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완도(전남광주)=양수영 기자

오리온, 바이오 등 대규모 투자 지속… 제과사업 한계 넘는다

현금창출력 바탕 신사업 고도화
지속 성장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
실제 실적 기여까지는 시간 필요

오리온이 제과 사업에서 확보한 견조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바이오를 포함한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그룹의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내 제과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바이오를 제과 이후의 핵심 성장축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오리온의 본업인 제과 사업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리온의 국내법인 매출은 5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5.4% 감소한 89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 법인은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법인은 매출 7877억원, 영업이익 1447억원으로 각각 24.4%, 33.7%



오리온 신사옥 전경.

/오리온

증가해 국내법인의 실적 규모를 넘어섰다. 베트남 법인 역시 매출(+15.9%)과 영업이익(+15.2%) 모두 호조를 보였으며, 러시아 법인은 매출 32.1%, 영업이익 62.2%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2025년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3조 3324억원, 영업이익은 2.7% 늘어난 5582억원을 올리며 본업의 강력한 현금 창출 체력을 입증했다.

오리온은 국내 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원가 부담에 대응해 바이오, 간편대용식, 음료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리가캄바이오사이언스(이하 리가캄바이오)를 중심으로 육성 중이다.

오리온은 2024년 5485억원을 투입해 리가캄바이오 지분 25.7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어 해외 종속회사인

팬오리온을 통해 전환우선주 825억원, 전환사채(CB) 425억원 등 총 125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핵심 과이프라인의 임상 2·3상 진행 및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확보를 위한 R&D 재원을 지원하고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리가캄바이오는 자체 ADC 플랫폼 ‘컨쥬올(ConjuAll)’을 바탕으로 안센바이오(최대 17억달러 규모), 일본 오노약품공업 등 글로벌 제약사와 굵직한 계약을 맺으며 누적 13건, 총 10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안센에 기술이전한 LCB84는 글로벌 임상 1·2상이 진행 중이며, LCB97 또한 일본에서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오리온그룹은 치과질환 치료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리온홀딩스는 2022년 하이센스바이오와 합작법인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고, 기능성치약을 개발해 해외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바이오 사업이 실적에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약 개발 특성

상 R&D 비용 지출이 지속되는 데다,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가캄바이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416억원을 올렸으나 영업손실 1065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429억원, 영업손실은 1185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바이오 투자는 그룹 오너 3세인 담서원 부사장의 경영 시험대이자 전략적 과제로도 꼽힌다. 2021년 수석부장으로 입사한 담 부사장은 상무와 전무를 거쳐 2025년 12월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전략경영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중장기 미래사업을 총괄함과 동시에 2024년부터 리가캄바이오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맞춰 미래 성장 사업으로 바이오를 선정했다”며 “식품과 바이오라는 핵심 축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CJ제일제당, 글로벌 소비자에 ‘K-김’ 알린다

수협중앙회 ‘GIM’ 브랜딩 캠페인 참여
프로스포츠 경기장서 비비고 김 샘플링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통해 한국 김 알리기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FC(LAFC)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 경기에서 비비고 김 샘플링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협중앙회가 한국 김의 미국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GIM’ 브랜딩 캠페인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은 캠페인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총 7회 행사 가운데 2개 회차를 맡고 비비고 김 2000개를 현지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첫 행사는 지난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KCON LA’ 기간에 맞춰 열린 LAFC와 샌디에이고 FC 경기에서 비비고 김을 샘플링했다. 2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CJ제일제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장 풀치인 오라클파크에서 비비고 김 샘플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에서 열린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경기에서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이정후 선수의 ‘바블헤드 데이’와 연계해 관람객들에게 비비고 김을 알렸다.

경기장에는 비비고 배너를 설치하고 인플루언서 초청과 SNS 콘텐츠 등을 통해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했다. CJ제일제당

은 스포츠 관람객을 대상으로 김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으로 소개하며 현지 소비자 접점을 확대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비비고 김을 소개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한국 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 AX 분야 등 세 자릿수 신규 채용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돌입

롯데가 9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은 계열사별 채용 시기를 3·6·9·12월로 정해 지원자들이 채용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롯데건설, 롯데이노베이트 등 15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50여 개 직무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는 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I·AI Transformation)을 위한 관련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채용에 참여하는 롯데이노베이트와 롯데건설은 자연어 및 시각·음성 처리,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롯데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채용박람회에는 롯데웰푸드, 롯데마트·슈퍼,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건설 등 20개 계열사가 참가해 회사 및 직무 소개와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다양한 전형을 거쳐 입사한 직원들도 참여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채용 과정과 입사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채용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에너지마티리얼즈와 롯데정밀화학은 울산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채용박람회를 열고 이공계 인재 채용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충청·호남·영남 지역 대학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SSG닷컴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

리빙·가전·뷰티 등 선물상품 선택

SSG닷컴은 추석을 앞두고 6일까지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열고 리빙, 가전, 뷰티 중심의 선물용 상품을 선보인다.

르크루제 하트 머그·트레이 세트와 송월타올 세트 등 실속 선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호도 가전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슬름 소형 안마기와 쿠쿠 음식물처리기를 각각 최대 35% 할인한다.

또 입생로랑·딤티크 등 인기 브랜드 기획전을 순차적으로 열고, 설화수·조말론 런던·산타마리아노벨라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추석 기프트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노브랜드 버거, 앱 누적회원 80만명 돌파

신세계푸드 할인·프로모션 확대

신세계푸드는 8월 기준 노브랜드 버거 자체 앱 누적 회원 수가 80만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앱 쿠폰 사용량도 50% 늘었다.

신세계푸드는 고물가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할인과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앱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앱을 통해 정기 프로모션인 ‘와페모 데이’와 매주 혜택이 바뀌는 ‘NBB 쿠폰팩’ 등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 80만명 돌파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와페모 데이’에서는 앱을 통해 NBB 아메

이징 더블업, NBB 아메이징 더블 치즈, 메가바이트, 오리지널 새우, 스모크 바비큐 등 5종의 세트 메뉴를 구매하면 같은 메뉴의 단품을 추가로 제공한다. 메뉴별 최대 43%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9월 한 달간은 ‘NBB 쿠폰팩’을 통해 버거 세트업과 사이드 메뉴·음료 증정 등의 혜택을 매주 제공한다. 신세계푸드는 앞으로도 자체 앱을 중심으로 할인과 프로모션을 확대해 고객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할인과 증정 혜택을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앱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미트프로젝트, 한우·육포 등 선물세트 선택

대상그룹 해성프로비전의 육류 전문 브랜드 미트프로젝트가 추석을 앞두고 한우, 미국산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LA 꽃갈비세트(1.8kg)’다. 미국산 소고기 중 6·7·8번 꽃갈비를 선별해 구성했으며, 청정원 LA갈비 양념 소스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감하루’에서는 ‘한마리 세트(1kg)’와 ‘구이 한판세트(1kg)’를 판매한다. 한마리 세트는 구이용·국거리·불고기용 부위로, 구이 한판세트는 등심·채끝·갈비살·부채살 등 구이용 부위로 구성했다.

육포 제품인 바삭 통육포 프리미엄 세트도 마련했다. 오리지널과 매콤한맛 각각 6팩씩 총 12팩에 매운치즈소스와 매운살사소스를 함께 담았다.



미트프로젝트 ‘추석 선물세트’ /대상그룹

추석 선물세트는 9월 21일까지 미트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배송받을 수 있다. 결제 금액의 10% 적립과 첫 구매 고객 대상 육포 증정 혜택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편의점, 담배가게 꼬리표 떼다... 근거리 장보기 거점 부상

CU, 담배 매출 비중 35.9%로 하락
GS25, 식품 매출 비중 14.8% ↑
세븐일레븐, 신선식품 매장 확대
반찬·축산·채소 장보기 매출 급증
상반기 편의점 비중 14.1%로 상승
대형마트 8.5% 제치며 격차 확대

골목 어귀 편의점이 '담배 파는 소매점'이라는 오랜 꼬리표를 떼고 일상적인 장보기를 책임지는 근거리 핵심 식료품 채널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편의점 매출을 떠받치던 담배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채소와 과일, 축산물, 반찬 등 신선식품과 식재료 판매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3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1~2인 가구 증가와 지속되는 고물가 기조 속에 대형마트를 찾아 대량으로 물건을 사던 소비자들이 집 앞 편의점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는 패턴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장보기 시장의 무게중심이 편의점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편의점의 매출 구조는 뚜렷한 체질 개선을 겪고 있다.



GS25가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 양념육 라인업 확대에 힘입어, 올해 축산 가공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신장했다. /GS리테일

CU의 전체 매출 중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1.0%에 달했으나, 2021년 39.5%로 40% 선이 무너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올해 2분기에는 35.9%까지 떨어졌다. GS25 역시 담배 매출 비중이 2022년 37.2%에서 올해 상반기 36.0%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담배 매출 비중이 축소된 빈자

리는 고스란히 식품이 대체하고 있다. CU의 식품 매출 비중은 2018년 10.9%에서 올해 2분기 13.9%로 뛰어올랐으며, GS25의 식품 비중도 2022년 13.1%에서 올해 상반기 14.8%로 확대됐다.

특히 두드러진 대목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성격 변화다. 도시락, 샌드위치, 삼각김밥처럼 즉석에서 한 끼를 때우

는 간편식을 넣어 집에서 조리해 먹는 '장보기 식재료'의 수요가 폭발했다. CU의 올해 2분기 장보기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2% 늘어났으며, 특히 집밥 수요를 대변하는 밀반찬류 매출은 121.3%나 급증했다. GS25의 상반기 장보기 상품 매출 역시 30.9% 증가한 가운데 축산물이 45.4%, 채소가 43.9% 뛰며 가파른 성장세를 견인했다. 편의점이 단순한 간식 구매처가 아닌 주방 식재료를 보충하는 1차 채널로 거듭난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대형마트의 부진과 맞물려 오프라인 유통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별 매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채널 중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8.5%까지 쪼그라든 반면, 편의점은 14.1%를 차지하며 대형마트를 크게 앞질렀다. 대형마트는 규제와 이커머스의 쿠팡커머스 공세 속에서 핵심이었던 식품 매출이 6월 기준 전년 대비 12.8% 급감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반면 편의점은 도보권이라는 압도적인 접근성을 무기 삼아 대형마트의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매장 포맷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GS25는

채소와 정육 등 신선식품 2000여 종을 구비한 신선강화형 매장을 연내 1100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매장은 일반 점포 대비 일매출이 100만 원 이상 높고 방문 고객 수와 객단가가 각각 36%, 15% 상승하는 등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CU 역시 '스마트 그로서리' 등 장보기 특화 매장을 늘리며 식재료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 세븐일레븐도 신선식품 특화 점포를 100여 곳 이상으로 넓히며 근거리 식품 경쟁에 합류했다. 세금이 높아진 이 낮은 담배보다 수익성이 좋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것이 점포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계산이다.

고물가와 외식비 상승에 대응한 '소용량·초가성비 간편식' 라인업도 1인 가구의 발길을 편의점으로 이끌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자 편의점들은 1000~2000원대 단품 핸드롤, 2알 단위 소용량 유부초밥 등 절대적 지출 부담을 낮춘 미니형 상품을 쏟아내며 청년층과 실속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웰메이드, 격식·편안함 잡은 '라이트 포멀'

인디안·브루노마피 등 가을 신제품
남궁민 화보 TPO별 스타일링 제안

격식과 편안함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성들을 위해 웰메이드가 단정하면서도 활동성을 높인 가을 스타일링을 제시한다.

세정그룹은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가 남성복 브랜드 '인디안'·'브루노마피'·'더레이블'의 가을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배우 남궁민이 출연한 화보를 통해 TPO별 스타일링도 공개했다.

이번 가을 컬렉션은 격식을 갖추면서도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이트 포멀'에 중점을 뒀다. ▲스웨이드 ▲코듀로이 ▲울 ▲캐시미어 등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웰메이드 '브루노마피' 2026 가을 컬렉션 남궁민 화보 이미지. /세정그룹

'인디안'은 스웨이드 점퍼와 코듀로이 셔츠형 점퍼 등 아우터를 중심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라벤더, 버건디 등 색감의 워셔블 베이직 니트와 몰스킨 팬츠를 구

성한 모던 캐주얼 스타일을 제안한다.

'브루노마피'는 그레이 멜란지 컬러의 수트와 이탈리아 포르텍스사의 울 캐시미어 혼방 하운드투스 재킷 등으로 출근부터 비즈니스 미팅까지 활용 가능한 클래식 룩을 선보였다.

'더레이블'은 아가일 패턴 니트와 그래픽 데이션 배색 브이넥 가디건, 탈부착 라이너 안감의 사파리 점퍼 등으로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구성했다.

세정 웰메이드 관계자는 "가을 컬렉션은 편안하면서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가을 특유의 소재감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제품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orystal@

하고하우스, 디자이너 브랜드 오프라인 확장

편집숍 '리포먼트' 공식 출범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 한자리

하고하우스가 온라인 중심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한자리에 선보이며 오프라인 점점 넓히기에 나선다.

하고하우스는 지난 27일 편집숍 '리포먼트(REFORMENT)'를 정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리포먼트는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한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를 모은 패션 편집숍이다. ▲광엔루 ▲로우타이드 ▲르셉템버 ▲라아보네 ▲매종마레 ▲뫼뫼에르 ▲솔티페를 ▲어몽 ▲제이청 등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가 입점한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입점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27일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중



하고하우스의 여성 편집숍 '리포먼트' 매장 전경. /하고하우스

동점을 시작으로 28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열었다. 다음달 3일 롯데백화점 전주점, 4일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종근당, 감기약 '모드콜' 6종 선보여

스트롱·이부 각각 3종 구성
증상·성분별 선택 폭 확대

종근당이 감기약 모드콜 제품군을 세분화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했다.

종근당은 '모드콜 스트롱 연결캡슐' 3종과 '모드콜 이부 연결캡슐' 3종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드콜 스트롱 연결캡슐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처방한 일반의약품이다. 지난해 개정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1캡슐당 아세트아미노펜 250mg을 함유한다. 콜드와 코프에는 거담 성분인 브롬헥

신염산염을 추가했다.

모드콜 이부 연결캡슐은 이부프로펜을 기반으로 해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스트롱과 이부 모두 각각 감기 증상에 따라 콜드, 노즈, 코프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감기 환자 증상과 성분별 특성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일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종근당 '모드콜 스트롱·이부 연결캡슐'.

지그재그 브랜드 최대 93% 할인

지그재그가 가을·겨울 쇼핑 시즌을 앞두고 300여개 인기 패션 브랜드를 모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카카오택시일은 지그재그가 브랜드패션 카테고리 최대 행사인 '브랜드페스타'를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행사 당시 브랜드패션 거래액이 전년 대비 24% 늘어나는 등 성과에 힘입어 이번 2회차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마뽀킴', '올리브데올리브', '틸아이다이' 등 310여개 주요 브랜드가 참여한다. 브랜드별 스테디셀러와 가을 신제품을 최대 9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 기간 전 고객에게 30%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72시간마다 브랜드가 교체되는 릴레이 할인전도 마련했다. '트리밍베드', '넛유어로즈', '마리골레트' 등 라이징 브랜드의 첫 구매자 대상으로 40% 쿠폰을 발급한다. /김수정 기자

LF몰, '스타일 파트너' 제휴마케팅 강화

LF몰 '스타일 파트너' 프로그램 론칭
SNS 상품 공유·구매시 수수료 지급

LF가 취향을 공유하고 소비로 연결하는 개인 크리에이터 중심의 쇼핑 생태계를 한층 강화한다. LF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LF몰에 어필리에이트(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LF 스타일 파트너'를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LF 스타일파트너는 참여자가 LF몰 내 패션, 뷰티, 리빙 등 다양한 상품의 링크를 개인 SNS에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거쳐 구매가 이뤄지면 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참여자들은 ▲TNGT ▲질스투어트 ▲아떼 베네사브루노 ▲히스헤지스 등 LF 주요 브랜드에서 상품을 직접 선택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LF는 개인의 솔직한 후기와 취향이 담긴 콘텐츠를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이번 제도를 기획했다. 전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팔로워 규모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

LF 스타일 파트너는 앞서 인플루언서 커뮤니티로 운영한 '나만의 패션 클럽(나패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마련했다. 나패클 콘텐츠 공개 후 일부 제품 거래액이 10배 이상 뛰는 등 효율을 확인하자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리워드 정산 및 전용 링크 발급 절차를 체계화했다.

파트너는 지원 후 내부 심사를 거쳐 활동하게 되며, 구매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리워드를 받는다. LF몰은 향후 대학생 크리에이터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고 브랜드 협업 기회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건실한, 충실한, 확실한
우리의 결실, 송실대학교

실(實)은
송실이다

송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2027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모집 안내

- 원서접수: 2026. 9. 8.(화) ~ 11.(금)
- 합격자 발표: 2026. 12. 18.(금)
- 합격자 등록: 2026. 12. 21.(월) ~ 23.(수)
- 입학상담: admission.ssu.ac.kr, 02-820-0050~3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시 바리스타·맞춤 향기' 도입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인공지능(AI) 바리스타 로봇과 맞춤형 향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 24일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 향기 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동아오츠카, 농업인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전파

동아오츠카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동아오츠카는 지난 26일 경북 상주시 함창농협 유통센터에서 농업인 약 3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



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세대 위한 직업 특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기부와 안전 체험 지원 등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 봉사단은 지난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양천도서관에서 초등·중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 특강을 열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대한항공



공영홈쇼핑, 수해·폭염 피해 중소기업 돕는다

공영홈쇼핑이 기획전을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회복을 돕는다. 지난 3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다시, 희망을 삽니다' 기획전은 이달 29일까지 4주간 모바일 앱과 웹에서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에서 총 20개 업체, 100개 이상의 상품을 소개한다.

/공영홈쇼핑



롯데마트, 발달장애 예술인 작품 담은 디퓨저

롯데마트가 발달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패키지에 적용한 '쿤달 향기마을 에디션 퍼fum 디퓨저'를 대형마트 단독으로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발달장애 예술인 소영 작가의 작품을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소영 작가는 발달장애와 신체적 제약 속에서 12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부터 브랜드 '쿤달'과 협업하고 있다.

/롯데마트

현대차 '아반떼 N', 글로벌 모바일 게임 무대 달린다

'레이싱 마스터'와 마스터컵 개최 결승전 공식 경기 차량으로 사용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모바일 레이싱 게임 '레이싱 마스터(Racing Master)'와 협업체 이달 19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현대N x 레이싱 마스터 컵' 오프라인 결승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게임 e스포츠 서울(GES)'의 e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온라인 예선에는 약 4000명이 참가했으며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홍콩·마카오·대만 등 4개 지역 대표 선수 8명이 결승에 진출했다.



모바일 레이싱 게임 RM 내 서울 도심 스테이지 남산 배경 이미지.

결승 경기에는 현대 아반떼N이 공식 경기 차량으로 사용된다. 현대N 차량이 글로벌 모바일 레이싱 게임 e

스포츠 대회의 공식 경기차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0달러와 게임 내 보상이 제

공된다.

현대차와 레이싱 마스터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GES 행사장에서 공동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 자체 심레이싱 e스포츠 대회 '현대N 버추얼 컵'의 개막전도 개최한다.

박준우현대차N메니지먼트실상무는 "이번 협업은 기존 콘솔·PC 중심의 심레이싱 활동을 모바일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게임 플랫폼을 통해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은보, 뉴욕서 'K-자본시장' 세일즈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뉴욕 글로벌 로드쇼 개최
시장 운영·인프라 혁신 경험 공유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사진)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뉴욕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하고, NY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뉴욕 일정에 앞서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시장 진출과 자금조달 경험, 현지 투자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산업 동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9월 3일에는 뉴욕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Korea Exchange Global Roadshow in New York'을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약 20개 기관투자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한국거래소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로드쇼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난 30일 경남 거제시 양정동 일대에서 실시한 '거제지역 수해복구 임직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KB국민은행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수해현장 찾아 복구 봉사

영남영업추진그룹 임직원 70여명
환경 정비하고 생필품 전달·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거제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영남영업추진그룹 임직원 70여 명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거제시 양정동 일대를 찾아 유입된 토사와 각종 잔해물을 제거하고 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 물티슈 2000여 개 등 생필품도 전달하며 수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제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5억원을 전달했으며, 주요 계열사들도 금융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피해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는 보험료 납입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피해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노사발전재단, 병원 조직문화 개선 지원

교육영상 무료 배포

노사발전재단이 '건강하고 안전한 병원 만들기' 교육영상을 배포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의 후속 조치다.

특히, 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바 있는 '병원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육영상은 병원 종사자와 관리자 등이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조직문화의 특성과 조직진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예방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방안 등이다.

이번 과정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병원 종사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 영상은 이날부터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재단은 병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진, 코리아컵 출전 명마 안전 수송

특수물류 역량 강화

한진이 세계 최정상급 명마들을 하늘길로 안전하게 나르는 '특수수송작전'에 나섰다.

한진은 오는 6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에서 열리는 한국마사회 주최 국내 최고 권위의 경마 대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참가해의 우수경주마들의 국제 왕복 수송을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진은 일본, 홍콩 등 해외 각지에서 출발한 경주마들을 수송 전용 특수 장비인 '호스 스톨(Horse Stall)'을 활용해 안전하게 항공으로 수송한다. 스톨 내부에는 배설물 흡수제와 톱밥, 건초를 깔아 경주마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말 1마리당 2명의 전담 관리인인 '그룸(Groom)'이 동승해 밀착 케

어를 제공한다.

지난 25일 심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한 경주마들은 검역 전 땅을 밟지 않도록 높이 2m 이상의 전용 브리지인 '하마대'와 특수 매트를 거쳐 수송 차량으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이는 경주마들이 검역 전 현지 공항 바닥이나 토양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 조치다.

경주마를 육상으로 수송하는 차량은 무전동 차량으로, 경주마를 안정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고가의 전문 장비다. 해당 차량에 탑승한 경주마들은 급격한 출발·제동을 금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기반 한국마사회 회의 수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천 렛츠런파크 마방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

/김승호 기자 bada@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작가와 만나고, 공원에서 북크닉을… 서울 곳곳 독서로 물든다

서울시교육청, 독서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가족 대상 다양한 체험 행사
성인 위한 저자 강연, 독서토론 등
텐트·빈백으로 꾸민 야외 도서관도

그림책을 읽고 비누를 만드는 어린이
체험부터 고전을 함께 읽는 저자 강연, 도
심 공원에서 즐기는 ‘북크닉’까지 온 가족
이 책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9월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그냥 좋아서(書)’를 공식 표어로 산하 23
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청소
년·성인 등 전 세대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냥 좋아서(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올해
독서의 달 표어다.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나누는 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가족숲속도서관’ 행사.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창작 체험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독
서 행사,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
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도봉도서관은

6~8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고 비누를 만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도서관 DAY’를 운영한다. 동대문도서관
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고
시식하며 문화를 이해하는 ‘가족과 함께
지구 한 바퀴’를 진행한다. 정독도서관의

가족과 함께 정독(精讀)’에서는 온 가족
이 함께 독서토론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송파도서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
로 ‘월데이 창의 미술 클래스’를 운영한
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3~4학
년이 류미정 작가와 그림책 이야기를 나
누고 행운 카드를 만들어보는 ‘류미정 작
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저자 강연도 열
린다. 고척도서관에서는 ‘우리는 왜 여전
히 오디세이아를 만나는가’를 주제로 호
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남도서관에서는 윤서영 작가가 MBT
I 유형별 스트레스 해소법을 주제로 독자
들과 만난다. 동작도서관에서는 ‘AI 시대
를 대비하는 우리아이 교육 로드맵’을 주
제로 저자가 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도서관 밖에서 책을 즐기는 행사도 열
린다. 구로도서관은 구로거리공원에서

‘가족숲속도서관’을 운영한다. 서울시교
육청의 ‘2026년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캠페인의 하나로 야외 팝업도서관을 조성
해 힐링·읽·독서·체험을 결합한 가족 참여
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야외 팝업도서관에는 텐트와 빈백, 캠
핑 세트 등을 활용한 독서 휴식 공간을 마
련하고 가족 독서용 도서와 간행물을 비
치한다. 책과 야외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
도록 ‘북크닉 꾸러미’ 대여 서비스도 제공
한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 평
생학습포털 ‘에버라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좋아서 책을 펼치는 9월이 되
길 바란다”며 “모든 세대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
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인하대, 국내 첫 해양과학 박사 복수학위 도입

美 매사추세츠 다트머스대학과 협약
학술교류, 국제연구 네트워크 확대

국내 대학 해양과학분야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를 함께 취
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 과정이 운영된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 다트머스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UMassD)
과 해양과학 분야 박사과정 복수학위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블
루테크 미래리더 양성사업’의 하나로 마
련됐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
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통해 2025
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 인
력양성 사업이다.



인하대와 미국 UMassD가 온라인으로 MOU를 체결했다. 백성현 인하대 교학부총장이 온라인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두 대학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인하대와 UMassD에서
각각 최소 1년 이상 수학하며 양 대학 교
수진의 공동 지도를 받아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학점 이수와 전공자격시험, 박

사학위 논문 등 양 대학의 졸업 요건을 모
두 충족하면 인하대와 UMassD의 박사학
위를 각각 받을 수 있다.

UMassD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다트머
스에 위치한 대학으로 해양과학기술학부
를 중심으로 해양학과 수산과학, 해양환
경 분야의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대학은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공동 지도뿐 아니라 교수·연구자·대
학원생 학술 교류, 해양과학 공동연구, 국
제 연구 네트워크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인하대 백성현 교학부총
장, 조장천 대학원장, 조동규 자연과학대
학장과 UMassD 랍프라스드 발라수브라
마니안 부총장, 테스파이 메레시 부교무
처장, 케빈 스톡스베리 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상일동 5개 빌라단지, 1492세대 아파트로

서울 강동구 노후 단지 통합재건축
498세대→1492세대… 최고 29층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5개 노후 연립주
택 단지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여 기
존 498세대에서 1492세대 규모로 재건축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
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
고 ‘상일동 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사업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일대
8만2640.7㎡다. 1986년 준공된 현대·삼
성·우성·효성·대림 등 5개 노후 연립주택
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재건
축한다.

현재 498세대인 주택은 공공주택 121세
대를 포함해 총 1492세대로 늘어난다. 건
축물은 최고 29층 규모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개별 단지별로 나뉜 토지이용
을 통합하고 공원과 보행체계, 도로 등 기



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반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대상지 북쪽에는 명일근린공원, 남쪽에는
승상산이 자리하고 있다. 건축물 높이는
명일근린공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하고,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 공
원 방향으로 통행축을 확보한다.

기존 단지 내 공원은 위치를 조정해 소
공원으로 조성한다. 소공원에서 명일근린
공원 산책로까지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도 설치한다.

교통시설도 정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남측 상안로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
가·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계획 승인

인천시, 전체 부지 승인 완료
도시 조성, 기업유치 나서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
단 전체 부지의 승인을 최종 완료하고 본격
적인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나선다.

이번에 조성되는 복합형 도시첨단산업
단지는 공업지역 50만 7944㎡를 필두로
주거, 상업, 녹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
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태어난다. 단순한
공장 지대를 넘어 완벽한 정주 여건과 지
원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유치 업종 역시 정보통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첨단 제조 등 고부가가치 지
식산업에 집중되며 특히 대기 및 수질 오

염물질 배출 업종의 입주를 원천 차단
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하는 친
환경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
이다.

김상길 시 미래산업본부장은 “이번 인
천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계양 테크노
밸리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과 지식산
업이 융복합된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기
업유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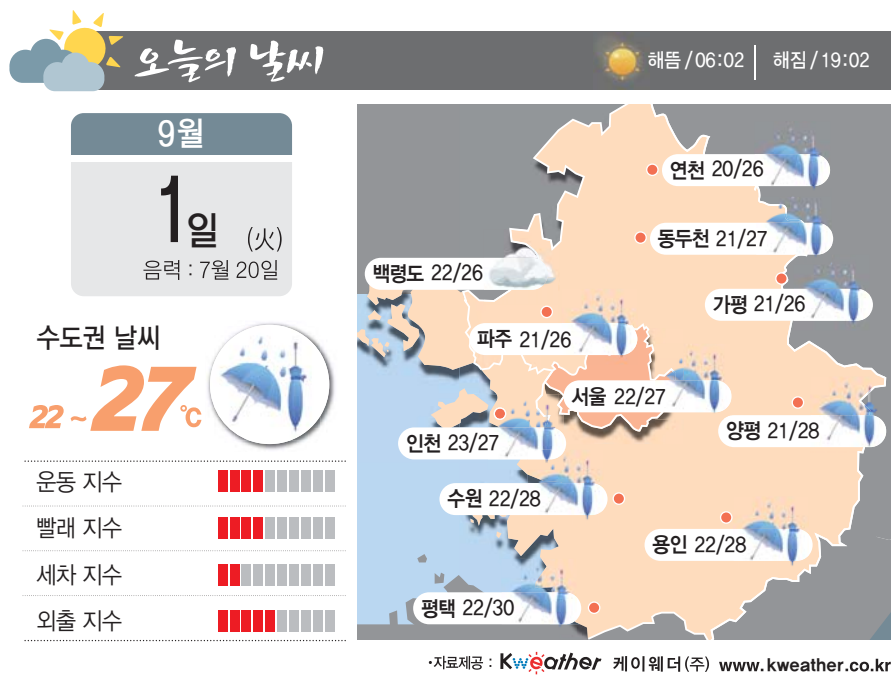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비수도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6곳 선정

정부가 권역별 핵심 산업을 이끌 석·박
사급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수도
권 대학원 6곳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첨단산업 특성
화대학원’ 신규 선정 결과를 지정 고시한
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대학원은 ▲중
부권 반도체(공주대) ▲동남권 항공방산
(경상대) ▲서남권 반도체(광주과학기술
원·GIST) ▲대경권 로봇(경북대) ▲강원
권 바이오(강원대) ▲전북권 로봇(전북대)
등 6개다. 신규 대학원에는 대학당 연간
30억 원씩, 최대 5년(3+2년)간 총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세종=한용수기자



▲네팔 홍수 닻새째…영안실 포화·시신 부패에
집단 매장 /사진 뉴시스
▲대선 아닌 중간선거 앞 이례적 전당대회…美공
화 ‘급조 행사’ 논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이란, 충돌 원하지 않아”…
美공습 후 첫 반응
▲“등반객 소변으로 매년 빙하 154t 녹아”…몸살
않는 에베레스트

▲이스라엘, 네타냐후 아들 “중대한 위협”에 긴급
대피
▲“트럼프 베네수 석유확보, 민간기업 난색에 국
방부가 투자자로”



오리온
바이오 등
신사업에 투자
L1



Life

편의점
근거리 장보기
거점 부상
L2



자연 품고, 이웃과 손잡고... 피부 너머 아름다운 세상 가꾼다

매일 아침 무심코 바르는 선크림 하나에도 지구의 내일을 고민하는 따뜻한 기술과 현장의 노력이 깊게 담긴다. 국내 최초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시작해 K뷰티 글로벌 신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친환경 공법 도입, 세심한 일터 환경 개선, 지역사회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하며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국콜마

사업장 내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로
작업·휴게공간,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선순환 구조
친환경 포장재 상용화... 탄소 감축
유해성분 배제한 선케어 제형 도입

청년 자립 돕고, 소외계층 아동 후원
긴급구호·위생키트로 이재민 보듬어

대금 조기지급... 협력사 유동성 확보
동반성장펀드 조성, 수출자금 지원도



- 1 비목재로 만든 친환경 포장재 '종이스티크'
- 2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종이튜브'
- 3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임직원들이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우보천리룸에서 '제4회 자율준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4 지난달 13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가운데)와 고대현 소이프로스튜디오 대표(오른쪽),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콜마

◆현장의 목소리로 채운 건강한 일터

한국콜마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생산과 연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한국콜마는 '안전과 보건'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꼽는다. 경영진, 노동조합,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례 회개 사업장 내 작은 불편과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건 제안 제도'와 일상 점검 활동을 대폭 확대해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무려 760건이나 발굴하고 즉각적인 시설 보완 및 프로세스 개선을 완료했다.

대표 사례로 지게차 헤드การ์ด 부분에 설치한 아크릴 보호 커버가 꼽힌다. 물류 현장에서 높은 곳의 적재물을 운반할 때 작업자의 눈에 먼지나 낙하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자체 제작했다. 또 작업장 내 중량물 취급 공정에 모듈형 전동 리프트를 적극 도입해 근골격계 부담을 줄였다. 화학물질 혼합 공정에는 자동식 배기장치를 증설하여 공기 질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사내 휴게 공간 리모델링, 조명 단차 및 조도 개선, 작업장 내 동선 최적화 등을 이뤄내는 등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구와 바다를 살리는 뷰티

환경을 향한 한국콜마의 기술 혁신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 생산부터 폐기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보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장품 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

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콜마는 업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포장재 '종이스티크'를 선보였다. 이 종이스티크 용기는 기존 플라스틱 용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86%까지 획기적으로 낮춰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인다. 나아가 버려진 종이와 자연 상태에서 더욱 빠르게 분해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감축하는 제조 공정도 갖췄다. 고온의 열을 가하지 않고 원료를 추출하는 비가열식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인 신원료 '에코-펄스 셀룰라'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화장품 박람회인 '코스모팩 어워드 2025'에서 지속가능성 부문 대상을 수상해 한국콜마의 친환경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도 구체화한다. 자외선 차단제에 자주 쓰이던 특정 화학 성분이 바다로 유입되어 산호초를 하얗게 죽이는 산호초 백화 현상을 막기 위해, 유해 성분을 전면 배제한 리프 세이프 선케어 제형 기술을 도입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사회공헌까지

한국콜마의 성장은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온기를 나누고 함께 자라는 동반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콜마는 일회성 성금 전달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시설을 떠

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콜마는 뷰티 및 조제·생산 관련 직무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장 인근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교육 물품, 건강 먹거리 팩, 맞춤형 영양제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아동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점차 빈번해지는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한국콜마의 발빠른 온정이 빛을 발한다. 집중호우나 대형 산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임직원 봉사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구호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위생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이재민들을 위해 자사에서 생산한 세제제, 기초 화장품 등 위생용품 키트와 구호 성금을 즉각 지원하며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한국콜마의 지속가능경영은 협력사와 공급망 전체를 포용한다. 한국콜마는 자사만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 협력사들이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준에 맞춰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중소 협력회사들이 자체적으로 ESG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 전문가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 지도, 환경 교육은 물론 실질적으로 친환경 공정 도입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돕는다.

금융 정책도 돋보인다. 중소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명절에는 납품 거래 대금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경기 침체로 겪을 수 있는 자금난을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다. 협력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복지 혜택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연계한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한 것도 독보적이다. 화장품 제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정부 주도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출연기업으로 참여해 K뷰티 가치사슬 확장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올해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과 'K0소비재 산업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0개 이상의 중소 고객사 및 협력사가 총 174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금융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보증료 지원, 보증 한도 확대, 최대 3년의 우대 보증 기간, 보증료율 우대 등을 바탕으로 수출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정하 기자 mlse23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테니스 전설' 조코비치, 생애 최초로 US오픈 1회전 탈락
▲최강 중국 넘는다...탁구 신유빈, 2개 대회 연속 금빛 스매시 도전 /사진 뉴시스

▲'즈베즈다 데뷔' 신동 김예건 "우승 많이 하고 싶어"
▲독일 매체 "헤르타 베를린, 홍현석 영입 목표... 선수도 이적 원해"

▲여자축구연맹, 지소연 향한 심판의 성희롱 발언에 "공식 대응 착수"
▲키움, 서건창 다년계약에 특약 추가...2년 최대 6억원→12억원